(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72 1981년11월17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November 17. 1981

NOV 19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고용증대보다 인플레가 주공격목표

예산안에 거센 반발

해외부양비송금 세금혜택도 제한

12일 의회에 제출된 82년도 연방예산안은 경제계, 노조, 주택소유자, 야당등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다.

연방예산안은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허덕이는 주택소유자를 위한 약간의 보조, 농토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농부들에 대한 5천만달러 보조및 파산지경에 있는 소기업 구제등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는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더 많다. 이 예산안은 불황타개나 실업자 구제보다는 인프레이션을 잡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브로드벤트 신민당수는 이번 예산안을 "재난"이라고 혹평하고, 특히 농부, 소기업, 주택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드벤트는 예산안 작성자인 메케큰 재무장관이 "캐나다판 레이고노믹"(Canadianized Reagonomic)을 시도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경제정책"레이고노믹"의 골자는 부자에게서 세금을 적게 거두어 그들의 기업을 촉진시키는것이 불황타개의 지름길이라는 이론이다.

조·클락 보수당수는 메케큰 예산을 겉만 번지르한 예산이라고 공격했다. 일반시민들의 반응도 대부분 부정적이다.

많은 주택소유자들은 연방정부의 주택보조는 은행과 모기지회사에 대한 빚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갱신을 하는 주택소유자들은 현재보다 60%이상이나 모기지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일반시민은 월급의 반이상을 모기지 이자로내야 한다.

메트로토론토 사회계획위원회 에드·페낭톤 사무총장은 직업창출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는 이번 예산안은 극빈자를 도외시한 부자위주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주택경제학자 프랭크·클래이튼씨는 이번 예산안은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산업에 찬물을 끼얹는결과라고 표현하며,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는한 일년내 주택산업 종사자10만명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자영기업연맹 존·벌록 회장은 예산안이 겉으로는 소기업을 돕는 것처럼 보이나 작년보다 15억달러나 더 많은 예산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소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호웨연구소 칼·베이지 소장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회복을 위한 장기목표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조처였다고 격찬했다.

연방정부 예산안은 주정부의 세입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온타리오 프랭크·밀러 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2억5천만달러의 교육과 의료보조비를 삭감, 주정부는 긴축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 산업도 연방정부의 감가상각에 대한보조금 삭감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밀러 장관은 말했다.

캐나다의 예산안은 특별 규정이 없는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만일 의회에서 안이 부결되면 예산안 제출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된다.

예산안의 부결은 정부불신임을 의미, 총선거가 실시된다.

[예산안에 대한 심상수씨의 해설을 18일자부터 게재합니다. 심씨는 민츠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차터트·어카운턴트 : CA)입니다.]

◇28일 기자회견에 응하는 트루도 수상 오른쪽, 여 공보관과 통역관이 보인다

예산안 골자

●주택소유자의 모기지지불액이 총수입의 30%를넘으면 정부보증하에 일부이자지불을 다소 연기한다.

○정부보조에도 불구, 모기지를 끝내 부담치 못하면 정부는 일년간 체납이자를 전액 지불해줄 수 있다.

○인구조밀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주택업자에게는 가구당 7,500달러까지 무이자대부를 해준다.

○파산위기에 있는 농부들은 이자율 11.75%의 대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자율은 현행 정부대부이자율보다(16.75%) 5% 낮은 것이며 신청기한은 82년 3월31일이다.

○고용주와 고용인들은 실업보험(UI)프리미엄을 종전보다 적게 낸다. 피고용인의 경우 수입 100달러당 $1.80의 프레미엄이 $1.65가 된다. 고용주 의 분담금은 $2.31로 떨어진다.

○치과보험, 건강보험등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베풀어주던 임금외 혜택에 대해 피고용인들은 이를 수입으로 계산, 세금을 내야한다. 벽지 근무자는 이 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

○만약 공인은퇴연금계획(RRSP)에 투자하기위해 돈을 빌릴 경우, 그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전국1천6백만 납세자의 ⅓에게 소득세를 감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제액은 $100 미만이다.

●중산층과 상류층의 합법적 탈세를 막도록 세금제도를 크게 개혁한다.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의 삭감.

●주식회사의 과잉소득에 대한 5%의 부가세 제도가 82년까지 연장된다. 83년에는 세율이 2.5%로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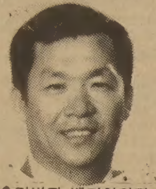
●연방정부 적자는 올 회계년도의 133억달러에서 내년 105억달러로 떨어진다.

●해외친척에 대한 부양비의 세금공제혜택은 납세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한한다.

●국영기업체가 된 우편국은 금후 4년간 134억 달러의 적자를 볼 것이다.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충될 것이다. 만일 적자액이 이보다 커지면 마이클·워런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김병진 회장 재선

벡커협회 총회



◇김병진 벡커협회장

회원권익 옹호를 위해 벡커본사에 과감히 맞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벡커프렌차이스협회(회장 김병진) 정기총회가 지난 13일 낮 토론토의 프린스호텔 에서 오찬회를 겸해 열렸다.

110명 회원중 70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최대안건인 집행부 선거에서 추천·거수제로 임기2년의 새 회장에 거의 만장일치로 김병진씨를 재선, 부회장에는 감사직에 있으면서 2년간 김회장의 오른팔 구실을 하며 공이 큰 이태준씨를, 총무에 김윤배씨, 감사에는 최덕주씨를 각각 선출했다.

감사및 이사진은 회장단 임명 케이스로 훗날 발표 예정으로 있다.

토루도수상 방한수행 100시간 (5)

기자회견서 이민문제 제기

수상 관심보였으나 불투명

◇9월28일 하오5시30분부터 트루도수상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질문자는 외신기자4명, 국내기자4명 으로 제한되었고, 시간도 30분으로 한정됐다. 나는 급히 사회자인 수상공보관 에게 기내에서 약속한대로 꼭나에게 순위를 달라고해서맨 끝번을 받았다.

◇기자회견에서 질문하는 이태은 특파원

수상쪽을 향해 질문대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좌측은 국내기자용, 우측은 외신기자용 이었다.

한국기자2명, 캐나다기자2명이 질문하고나니 시간은 훌쩍지나 30분을 초과했다. 기자질문과 수상답변시에 동시번역으로「인터폰 이어링」이 사용되었으나 통역이 미숙, 혼란을 빚었다.

나는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마지막 질문자"Tae Lee"한다. 외신기자 질문대위에 올라서니 모두들 나를 쳐다보는것 같아서 몸이마구 떨린다. 마이크 높이를 조정한후 수상에게 천천히영어로 캐나다내 오직 4만의 교민이 살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한국교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민문호를확대할수는없읍니까? 라고질문을 했다.

수상은 답변에서 오직 4만명 뿐이라고 했는데, 미국에 한국교포가 30만 정도나 되는데 그정도 또는 얼마만큼 더많은 숫자를원하느냐고 반문, 당황했으나 현재보다 더 많은 이민증가를 원한다고 곧 응답 했다.

수상은 캐나다는 쿼터시스템(할당제), 포인트 시스템(점수제)제도를 쓰고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학력이 있고 건강하고 또는 캐나다내 친척이 있으면 이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러한 포인트 시스템을아직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면서그러나 캐나다내 한국교포들은 아주좋은 시민으로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다소 한국인 이민증가에 대한 고려를할듯 했다.

끝으로 수상은 웃으면서 당신은 캐나다가 지옥(Terr ible Country)이란것을 잘 알면서 왜 더많은 이민증가를 요구하느냐고 조크, 웃음을 자아냈다.

인터뷰가 끝나자 수상은 여공보관과 같이 퇴장하면서, "미스터·리 왜 이민증가를 해달라는지?"하고 재차 묻고, 여 공보관이"미스터리는 이제 한국인이 아니고 캐나다인의 입장에서 질문했을 거라고 답변, 수상은 그제서야 내가 시민권자가 아닌 입장에서 질문 한것으로 잘못알고 있었다고, 제게 꼭 전달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공보관은 별도로 나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어서 나는 기분이 더 좋았고, 뭔가 하고픈 애기를 하고나니 목적을달성한 보람이 있는것 같다.

한참 인터뷰에 대한것을 생각하다보니, 그날 약속한 태권도 시범시간은 지났고, 스케쥴 재확인을 못받았다. 급히 수상실 룸 비서에게 연락했더니 수상이 차관과 사워중이고 시간이 너무많이 초과해서 특별스케쥴 진행은 어려울것 같으나, 직접 수상의 의견을 듣고 연락해 주겠다고 해서 시간을 보니 벌써 곧 총리디너에 참석하실 시간이 되었다.

나는 다시 비서에게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니 말씀드리지 말라고 취소하고국기원에 연락, 실정을 얘기 사과했다. 아뭏든 비상시범준비에 힘쓴분들과 시범차 대기했던 미동국교시범단에게 씁쓸한 실수가 됐다.

수상과 풀일행은 총리디너에 참석하게 예정되어있었으나 모처럼 기자들을위한 디너가 별도로 문공부주최로「한국관」에 마련되었으니 모두들 그곳으로 가자고 제의, 풀 맴버중 1 명선정해서 보내고 전원이한국관으로 갔다.

식사후엔 미리준비된 한국 고전음악, 가야금연주, 칼춤, 부채춤, 탈춤, 북치기, 창가등을 공연해 주어서나는 고국에 온것을 실감했고, 박수를 손이아프도록쳤으나, 외기자들은 뭔가 이해가 잘 안가지만「베리굳」이라고 해서 모두 웃었다.

11시경 방으로 돌아와보니 여기저기서 많은 전화번호 메모가 놓여있다. 모두다 전혀 모르는 번호라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12시가 넘어서 여러신문사에서 이민관계에 대한 인터뷰를 하자고 한다. 전부거절했다.

이태은 특파원

합창단원모집

한인Y, 30일로

토론토의 한인YMCA 합창단(지휘 안병원)는 모국원정 출연을 앞둔 합창단원 모집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상보<한국일보> 11월4일자 1면)

청소년 남녀및 일반인(중년)을 통틀어 음악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이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연락처 : 533-2361 · 한인 YMCA)

토론토 소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보석(귀금속)가공공장면허를 획득하고 있는 은하보석상에서 PRE-X마스 선물로 드리는……

◆◆ 다이아몬드 깜짝세일 ◆◆

장 소 : 635 BLOOR ST. W.
전 화 : 534-9977, 534-7791
기 간 : 12월24일까지

재고번호 Stock No.	크기(무게) Weight	색갈 Colour	투명도 Clarity	가 격
A934	1,72CRT	J	VS-2	$12,500
632	1,07CRT	L	I3	$1,400
A999	1,40CRT	J	I-1	$6,900
A846	1,03CRT	J	SI 2	$4,100
C10	1,00CRT	F-G	SI-2	$4,195
837	0,78CRT	F	VS-2	$4,036
A1001	1,36CRT	J	I2	$3,890
A1002	1,07CRT	I	VS2	$6,250

재고번호	크기(무게)	색 갈	투명도	가 격
A1003	0,51CRT	E	VVS-1	$3,895
A877	0,55CRT	H	VVS-2	$2,495
778	0,58CRT	H	SI-1	$2,350
A630	0,67CRT	J	SI-1	$1,990
A637	0,50CRT	I	SI-1	$1,795
A1011	0,65CRT	J	I2	$1,499
A1013	0,54CRT	I	VS2	$1,979
A1012	0,50CRT	I	SI-1	$1,643
A1006	0,53CRT	I	SI-1	$1,759

재고번호	크기(무게)	색 갈	투명도	가 격
A1010	0,47CRT	J	SI-1	$1,290
A1009	0,50CRT	J-K	SI-2	$1,320
A1007	0,57CRT	H	SI-1	$2,199
A1008	0,55CRT	G	SI-1	$2,099
A1005	0,58CRT	H	VS2	$2,200
A996	0,56CRT	J	VVS1	$2,820
568	0,54CRT	H	I-1	$1,995
~~A1004~~	~~1,34~~	SOLD	~~SI-2~~	~~$7,750~~

And much much, more in stock.

상기가격에는 반지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이아몬드 품질규격은 미국 GIA의 CODE에 준함

ROLEX대리점
은하보석상

ADDITIONAL PRE-XMAS SALE ITEM
SEIKO WATCH 35% OFF CONCORD WATCH 40% OFF
OMEGA WATCH 35% OFF BULOVA WATCH 40% OFF

＊은하보석상＊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12일밤 런던에서 개최된 81년도 미스·월드대회에서 미스·월드로 뽑힌 베네 주엘라의 필린·레온양(18세). 세계각국 미녀 69명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힌 레온양은 콤퓨터 전공학생이며, 부상으로 만3천달러짜리 털코트등을 탔다.

립스, 필리 셧아웃4:0

악동들 꼼짝없이 당해

메이플립스가든에만 오면 주눅이 드는 필라델피아·플라이어스는 이번에도 또 메이플립스에 의해 4:0으로 셧아웃당했다.

그러나 링크의 악동들인 플라이어스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게 맹활약, 관중들에 게임보다 난투극을 더 즐기게 해주었다.

이날게임의 악동대장은 폴·홈그렌, 1피어리드에서 폴과 부딪쳤던 립스의 죤·깁슨은 "나머지선수들은 폴의 조무래기들에 불과했다"고 야유했다.

립스는 1피어리드에서세가낙이 첫 골을 넣은 데이어 샤밍, 해리스, 로버트등이 골을 넣었다.

필라델피아는 항상 토론토에서 고전 80년이래 7패 4무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토 메이플립스는 이날 승리에도 불구, 노리스디비죤 최하위(6위)를 면치 못했다.

토론토는 오는 수요일(18일) 하트보드에서 어웨이게임을 벌이고 토요일에는 보스톤과 홈게임을 갖는다.

◇악동중의 악동 폴홈그렌과 립스의 댄·말로니의 싸움을 심판들이 뜯어 말리고 있다.

불황타개 전망 어두워

미국경제는 내년봄에나 회복

캐나다경제는 지난 여름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을 막을 어떠한 제기는 보이지않고 있다고 12일 캐나다통계국의 월간보고서가 밝혔다.

통계국은 경제악화의 징조로 소매업계의 상품구매및 주택매매량이 극히 떨어지고 제조업계의 재고가 계속 쌓이는 것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약화는 더욱 심화되고 제조업계는 재고적재로 인한 경비를 충당키위해 종업원해고방책을 쓸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캐나다 상품의 수출전망도 어두우며, 이는 주 경쟁상대국인 미국의 상품도 마찬가지라고 캐나다 통계국은 밝혔다.

토론토의 한 증권전문가는 "캐나다 경제가 미국경제를 뒤쫓아가는 추세인만큼 현재의 심각한 경제불황이 올겨울내에 타개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보았다.

레이건미국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경제가 내년 봄께, 늦으면 초여름쯤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교파교회 탄생

"오타와 한인교회"

(오타와 이태은지국장)

지난 8일 오타와 한인교회(목사 정대위)는 창립 5주년 기념예배를 보았다.

이날 기념예배에는 오타와 전한인회원과 대사관 직원이 초청되어 기념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예배후에는 그동안 무보수로 봉사해온 정대위 목사의 생일기념및 5주년기념 다과회가 있었다.

지금까지 오타와에는 1개월에 한번씩 모이는 초교파 모임의 「오타와 크리스찬 펠로우 쉽」이 있었으나, 5주년을 계기로 「오타와한인교회」로 정식교회명칭을 붙이고, 주2회(두번째, 4번째 주일)모이기로 교인총회에서 결정, 계속 초교파로 운영되고 있다.

〈시〉

가난한 그대

송순태 (토론토 교포)

내가 자네를 사랑하는 것은
자네의 그 흰 가난 때문이네.

그저 조용할 뿐,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비굴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희게 희게 표백된 가난.

내가 이름없는 풀꽃 한송이
자네 깃섶에 꽂아주는 것도
자네의 그 맑은 가난 때문이네.

얼룩지거나 냄새나지 않는 가난,
애걸하거나 괴롭지도 않는 가난,
오직 자네자신의 것으로 그 가난,

내가 자네의 찬손 감싸쥐고
거기 내 더운 가슴의 혈온(血溫)을 나누는 것도
자네 그 정직한 가난 때문이네.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마른 가난 이겠지.
채워도 끝없이 부족한 영혼의 잔.

내가 자네를 만날때마다
나의 가장 깊은 밀실의 문마저 닫지 못하는 것은
아! 그렇다네.
자네의 그 깨끗한 나신(裸身)
그 가난 때문이네.

백만장자 3세 병원비도 못내

폴·게티 집안 분규로 소송걸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상속자로 알려진 폴·게티 3세가 지난 4월 뇌일혈로 쓰러진후 그 후유증으로 눈이 멀고 몸이 마비된데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미움까지 받고 있다. 폴·게티3세는 73년 이태리에 유괴를 당해 한쪽귀를 짤린바 있다.

산·호세 머큐리신문은 석유재벌로 이름난 폴·게티3세(25)의 아버지 폴·게티 2세는 그의 아들을 방문하거나 의료비지급을 일체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7개월전까지 게티 3세는 아무도 돌보는 이없는 방랑자 신세를 면치못했으며 지금 그는 어린아이처럼 음식을 떠먹여 주어야하고 괴로운 고함을 지르는 것이외엔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 게티 3세의 의료비로 그의 아버지에게 한달 $25,000를지불하라는 소송사건에 게티 3세와 그의 어머니측을 번호하게된 샌프란시스코의 변호사 에드워드·스태덤씨는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그의 아들의 의료비지급을 주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백만장자 아버지를 비난했다.

한편 폴·게티 2세의 변호사 로버트·던씨는 런던에서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캘리포니아법원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캘리포니아주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에게 신체부자유한 자녀들을 돌볼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머큐리지는 게티3세의 뇌일혈은 과도한 음주와 마약복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것이 정상대로였다면 게티3세는 매년 게티가 손자들을 위한 위탁기금에서 20만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폴·게티3세

사건의 발단은 74년 게티3세가 18회 생일도 맞이하기전 기젤라·자호어라는 여성과 결혼, 25세이전에 결혼하면 위탁기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게티가의 규율을 어긴대서 시작됐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두자녀와 같이 살며 극작가로 일하는 기젤라는 그들의 결정에 절대 후회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이 결혼하기 바로전 게티3세는 이태리에서 유괴당해 유괴범들은 1천7백만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그당시 런던에 사는 그의 할아버지는 "일전한푼도 줄 수 없다"고 강력히 맞섰다.

게티(게티3세의 할아버지)는 그의 손자가 정말 유괴된 것이 아니라 유괴범들과 공모하고 있다고 믿었다.

유괴범들은 4개월간 걸친 협상을 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게티3세의 오른쪽 귀를잘라 한다발의 머리카락과함께 로마에사는 게티 어머니에게 보냈다.

결국에는 3백만달러 상당의 돈이 유괴범들에게 들어갔고, 게티3세는 유괴당한지 5개월후 남부이태리거리를 방향감각없이 허약한 몸으로 거니는채 발견됐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단 편〉

모래성 ⑦

박 성 민 (문협회원)

그것을 얻어먹는 것이 부끄럽다거나 어색하게 생각되기에 앞서 기영은 마냥 기쁘기만 하였다. 그녀는 또 종종 빛깔이 고와보이는 단추모양의 미제초코렛을 가지고 와서 수업시간에 책상 밑으로 기영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내 반에선 "기영이 현정의 꼬붕"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네에서조차 애들이 놀려대기 시작했다.

기영이네 반의 변소에는 "기영이는 현정이의 꼬붕이다"라는 낙서가 어느새 적혀 있었다. 특히 같은 동네에 살며 한반인 동식이 녀석이 기영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기영이 동네에서 현정이와 뭘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동네에서는 기영이 학교에서 현정이와 뭘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언젠가 녀석은 기영을 포함한 동네애들이 놀고 있는 가운데서, 기영과 현정이가 뭐뭐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몸짓까지 해보여댔다.

사실 동네애들은 새로 이사온 집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집앞을 지날때는 침을 뱉았으며, 심지어는 한쪽 담에다 일부러 오줌을 싸대는 녀석까지 있었다. 특히 흰 수염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나 그집의 가시철망 사이로 라일락꽃이 피었을 때, 감나무에 매달린 감이 빛깔을 더해갈때면 애들은 그 너무나 높아진 담밑에서 짝쟁이네 집안을 향해 감자떡을 먹이곤 했다.

그날 기영은 동식이와 대판 싸웠는데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태권도가 검은띠라는 동식이 녀석은 반에서 첫째가는 가다였다. 그는 때로는 한학년 위인 애들과도 종종 싸워서 이기곤 하였다. 기영이 현정과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네애들은 싸움이 너무 일방적이었는데도 아무도 말리려 하지 않았다. 그날 기영은 코피를 흘렸고, 눈밑이 시퍼렇게 부었다.

집에서 코피를 닦으며 기영은 조그만 주머니칼을 준비했다. 그는 그것으로 동식이 녀석의 등을 찌르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꼬붕"이라는 소문은 이내"신랑"이라는 소문으로 확대되어서 퍼지시 시작했다. 그리고 변소에는, "기영이 새끼는 현정이의 신랑이다. 둘이서 뭐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는 낙서가 새로 누군가에 의해 씌어졌다.

가영은 그 낙서를 쓴 것이 동식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런 소문이 퍼진 이후로 기영은 애들에게 더욱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다. 기영 자신도 웬지 부끄러웠다. 신랑이란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아뭏든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야기였다. 그러한 놀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영은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동식이 녀석의 등을 준비해둔 칼로 찌르든지, 아니면 애들에게 그가 현정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둘중 어느것도 기영으로선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기영은 당번이 되어서 혼자 교실을 지키게 되었다. 반애들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무심히 애들의 놀림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기영에게 현정의 빨간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일본에 갔다가 사왔다는 것인데, 예쁜 공주와 씩씩한 왕자가 얼굴을 나란히 하고 한껏 웃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기영은 동식이의 등을 찌를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주머니 속에 있는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상스럽게도 세상의 모든 기쁨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듯이 밝게 웃고 있는 왕자가 갑자기 미워졌다. 그날 기영은 동식이의 등을 찌르려던 칼로 그 용감하고 잘 생긴 왕자의 얼굴을 반으로 갈라놓고 말았다.

일은 그 다음 날에 터졌다. 그녀의 엄마가 가방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학교로 전화를 건 것이었다. 종례가 끝나고, 담임선생은 현정이의 가방을 찢은게 누구냐고 물어왔다. 선생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나오라고 했지만, 기영은 나설 수가 없었다. 선생은 모두 눈을 감고 책상위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손을 들라고 했지만 그때도 기영은 손을 들 수가 없었다. 결국에 선생은 누가 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했다.

얼마후 선생은 기영의 주위를 왔다갔다 하더니 전부 눈을 뜨라고 했다. 그리곤 기영을 불러냈다. 근 한시간 가량 집에 늦게 가게 된 애들은 그들 담임선생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기영에 대한 원망의 눈초리들이 이내 좋은 구경거리를 하게 된 호기심의 눈으로 변하여 반짝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또 자기자신이 걸리지 않은 안도감까지 합쳐져서 아주 행복해했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 갓 들어온 담임은 무섭기로 기영이네반뿐 아니라 딴반과 나아가서는 딴 학년에까지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의식이 희미해지면, 모범반이라는 명예에 대해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가령 기성회비 납부율이 시원치 않을 경우엔 으례 누군가를 골라 따끔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호랑이"라는 자기의 별명과 권위가 더욱 찬란히 빛남과 아울러 지각, 결석이 없고, 기성회비 납부율이 전교 제일이라는 눈부신 성과로 모범반이라는 표창을 조회때 받은 것이다.

선생은 기영에게 현정이의 가방을 찢은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기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 자신도 그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정이의 가방을 찢은 것은 극히 순간적인 일이었고, 애초 그는 동식이의 등을 찌르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니까… 그러한 기영의 행동을 선생은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른다고 때리기 시작했다. 그의 한주먹에 기영은 교실구석으로 나가떨어졌다. 선생은 기영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다시 그의 앞에 가장 무방비한 상태인 차렷자세를 취하기를 요구했다. 그리고선 대답을 기대했다.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고선 그는 그 효과를 너무 믿고, 있었다. 기영은 빨리 대답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 변명 비슷한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었다.

기영이 대답이 없자 선생은 더욱 세게 때리기 시작했다. 군대를 갓제대했던 그는 자기가 있던 군대시절 마냥 학생들이 잘 훈련된 졸병처럼 죽으라면 죽는 시늉을 하길 원했다. 그렇게 그의 말은, 아니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하여 그는 반항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

기영이 대답 없이 서있는 것을 그는 일종의 반항이며 자기의 권위의식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는 사정 없이 기영을 패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선생의 주먹이 기영의 콧등을 쳤다. 그것은 말없이 때리던 그의 입에서 "이 새끼"라는 욕이 나옴과 동시였다. 다시 일어서려는 기영의 코에서 코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구경하던 반애들의 눈에서 즐거움보다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동정의 빛이 떠올랐다. 어떤 여자애가 비명을 질렀을 때 그는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선생은 기영의 피에 대한 미안한 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그동안 아롯한 쾌감에 붉게 달아오르던 자신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일장 훈계를 하기 시작했다.

기영을 심하게 때린 것은, 자기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기영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었는데, 기영이 스스로 뉘우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가방을 찢은 기영의 행위가 미웠던 게 아니라, 남자답게 행동 못한 기영의 비겁이, 그리고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태도가 싫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리고 벌칙으로 한달동안 변소청소를 하라고 했다.

(계속)

김장세일
◆정씨농장◆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아래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세일 합니다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기 간 : 11월16 일~11월29일까지

배 추 : $6.50—50파운드(1BOX)
무 : $8.50—50파운드(1BAG)
총각무 : $8.50—30파운드(1BOX)

해병의 밤

삼군에 앞장서는 해병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 흘리며 싸웠던 캐나다 한국참전 용사회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크리스마스및 연말파티를 갖고자 하오니 해병전우회원들은 대한민국의 한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전원 참석할것. 이상.

일 시 : 12월13일(일) 저녁6시 정각
장 소 : CANADIAN FORCE BASE(공군기지)
DOWNSVIEW TORONTO(KEEL & SHEPPARD)
회 비 : 부부당 15달러
연락처 : 회 장—남 상 현(846—2444)
부회장—최 장 복(493—0825)
총 무—김 명 정(652—0370)
첨 부 : 다량의 경품이 준비되어 있음

"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해병전우회장 남 상 현

예술의 향기 ⑥

예술의 도시 플로렌스로

유 희 자

오늘은 아침 8시에 버스를 타고 한 40여분 거리의 이태리에서 첫손 꼽는 역사적인 예술의 도시 플로렌스에 가는 날이다.

르네쌍스 전성기에 모든 예술의 중심지였던 이 지역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들한다.

플로렌스는 이태리의 중북부,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하는 터스칸지역이 또한 15~16세기의 파이프올간 건축에 전성을 이룬 지역이기도 하다. 길이 매우 좁기 때문에 버스를 도시 문턱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10여분 아노강을 끼고 걷다가 출퇴근시간으로 분비는 대도시의 인파 속으로 끌려들어가 좁은 신작로를 몇번 꼬부라져 따라 걸으니 베키광장이 나타난다.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Oh my God!"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심경이다. 광장 동남쪽편에 조각전시회에나 온 것같이 갖가지 인물, 동물들의 상이 즐비하게 서있지 않는가!

이곳은 한때 르네쌍스 왕국인 메디치의 궁전도 되었고, 후에는 정부의 청사로도 쓰였다는 베키궁전이 있는 곳이다.

그 앞에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품 데이빋상(현재 진짜는 아카데미 박물관에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을 비롯해 옆에 있는 분수에는 아마나티의 조각품 "흰 거인"이 여러 남녀조각품 속에 둘러싸여 마차위에 서있는 것이 보인다.

이 광장을 지나 다음 목적지는 14세기 전형적인 르네쌍스 건축인 바디아 피오렌티나 성당이다. 이곳에는 1558년에 만든 이태리 올간의 대표가 될만한 세페리니 올간이 원형 그대로 있는 곳이다.

안에 들어서니 정사각형의 육중한 돌건물에 높은 천장, 정중한 제단등 조화된 기둥과 벽색깔, 첫눈에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하는 분위기다. 오른편 천정 높이에 금색으로 테두리를 장식하고 회색,은빛으로 조화있게 나열된 올간 파이프들이 보인다.

아하! 저 올간이 바로 420여년 동안을 수많은 영혼을 위안하며 아름다운 소리로 이 성당안을 지켜온 이태리의 보물이로구나 생각하니 감개무량한 마음 그지없다. 이곳에서 올간을 실제로 쳐보면서 그당시 작곡된 곡들을 어떻게 연주하여야 하는가를 토의하는 세미나를 갖는 것이 일정의 하나이다.

탈리아비니 교수가 먼저 올라가서 올간의 소리를 한가지씩 뽑아서 즉흥연주를 해주신다. 각소리마다 독특한 음색을 갖고 성당안에 울려퍼진다. 점잖고 위엄있는 푸린시풀 소리, 그위에 보태면 좀더 박력있게 들리는 옥타브소리, 부드럽고 섬세한 홀룻소리, 맑고 깨끗한 중간음 소리, 가냘프면서도 아름다운 높은 소리, 최후로 모든 소리를 합쳐서 내는 장엄하고 웅장한 소리, 그외로도 백파이프같은 소리, 새소리와 같은 묘한 소리등 특별한 효과를 내는 소리들,여러 종류의 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소리들이 400여년전에 만들어졌으며, 아직까지 보존되어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책으로만 공부할 때는 믿는둥 마는둥 했었는데, 실제로 듣고 연주하고 하니 감탄사만 연발할 수밖에 없다.

◇예술의 도시 플로렌스의 광장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있는 동안에도 다른 여행단체들이 조용히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이 보인다.

이곳에서 한두시간 정도를 보내고, 다시 걸어서 로렌조성당으로 갔다. 가는 동안에도 도시 구석구석의 건물에 새겨진 조각들, 하다못해 길에 깔린 돌 하나라도 메디치의 문화를 말해주는 듯 감회를 일구어준다.

로렌조성당에는 이태리 올간건축 발달의 정점에 달하는 시기인 1864년에 만들어진 올간이 있다.

르네쌍스시대에 발달된 모든 기술과 새로이 고안해낸 여러가지 종류의 올간소리와 보다 폭넓은 올간·건축 기술이 동시에 합작이된 걸작품의 올간이다.

이 올간은 르네쌍스 올간의 특색이었던 하나짜리 건반에서 3개의 건반으로 발전되었고, 발건반도 18개의 음으로 확장된 올간이다. 소리 종류도 50여개로 늘어나 여러 스타일의 곡을 제한을 받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된 것이다.

다시 또 탈리아비니 교수가 올라가서 각가지 소리의 특색을 살리는 즉흥연주로 올간을 소개했다. 이 큰 성당에 때로는 가냘프게, 때로는 장엄하게,때로는 박력있게 수십종류의 소리들이 화음이 되어 퍼진다. 17세기 어느 음악이론가는 파이프·올간이 만들 수 있는 올간소리의 배합가능성을 도표로 보여준 것이 있는데, 올간의 크기(올간의 크기는 파이프의 종류로 정해짐)에 따라 그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지적한 것이 있다. 그 이론대로 수십가지 분위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파이프 올간의 멋, 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멋은 파이프 하나 하나가 갖고 있는 소리가 개성이 있고, 아름다울수록 배합된 소리도 특성이 있고,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다. 건반이 3개나 될 때는 소리의 배합도 풍부할 뿐 아니라, 연주할 때 각가지분위기의 소리를 별 불편 없이 연결해 나갈 수 있어서 우선 많은 레파토리를 무리 없이 연주할 수 있는 점이 그 장점이다. 말하자면 이 올간은 그모든 장점을 다 갖춘 올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간을 보러 올라가기 위해 뒤로 나가 좁은 층계를 올라가는 문앞에 한줄로 서서 먼저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 속에 들어서니 연하게 켜진 전등불 속에 보이는 것은 온통 연록색의 대리석과 조각품으로 덮인 팔각형 모양의 큰 방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유명한 메디치의 채플이며, 입장료를 내지 않고는 들어갈수 없는 방이라고 한다. 아마 내가 들어갔을 땐 문지기가 졸고 있었다.

이 채플 안에는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품들인, 줄리아노 공작의 무덤과 로렌조 공작의 무덤등이 있었다. 무덤에는 각공작들의 인물조각품과 밤과 낮, 또 새벽과 황혼을 상징하는 남녀의 상이 각각 양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조각품들이다.

이 조각품들이 풍기는 무게와 엄숙한 분위기가 이 메디치채플을 한층더 깊이 있는 명상의 분위기로 이끄는 듯하였다. (계 속)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 사 광고국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三國志 255

글·高羽榮·그림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93)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발밑의 얼음이 굉음을 내며 갈라지며 찬물이 그 틈으로 올라와 내입과 콧구멍까지 차더군요. 드디어 내밑에 깔려있는 얼음이물속으로 갈아앉고 저는 물속에 잠겨버렸읍니다.

처음엔 사방이 캄캄하더니 점차 주위가 녹색의 안개속에서 어렴풋 윤곽을드러내기 시작 했읍니다. 그것은 고기가 아닌 몸통없는 사람의 머리로 팔과 다리가 머리에서 직접 났더군요. 참 이상한 것은그것이 한 백인의 머리였지 만 그전해 여름에 강가에서본 사람과는 달랐읍니다. 그것은 수염이 잔뜩난 하늘빛처럼 차거운 눈을 가졌더군요.나는 그때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의식했고,물속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 치는동안 이 거대한 머리는 크게 너털웃음을 웃으며 내귀에 무섭게 거품을 일구는 소리를 계속 냈읍니다. 나는 그것이 토른락 이라는것을 깨달았고,또 앞으로 나에 게 도움을 주도록 휘어잡아야 된다는것을 느꼈지요.허나 찬물이 나의 폐속으로 차들어와 익사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지요.

내가 얼음밑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르지만 의식이 희미해져 갔기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것만 알고있었읍니다. 내가 다시 깨어났을때는 내자신이 큰 검은 물구멍옆에 누워있는것을 발견했지요. 그러나 내옷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추웠는지…나는 입고 있었던 옷을 벗으려 애를 썼지만 옷은 강철처럼 단단했읍니다. 나는 내팔과 몸에 있는 살점을 찢으며 얼음처럼 딱딱한 털옷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알몸으로 호수위를 뛰었읍니다. 후에 사람들은 내가 걸어온 거리를 들판을 하루동안 쫓아가서 확인했고,나의 맨발자국이 눈위에선명하게 나있더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호수에까지 와서 그 큰 물구멍도 보았고,나의 얼어붙은 옷이 얼음위에 죽은 사람이 누워있더라고 말해줬어요.

가꾸미가 늙은 아버지아주트에게 이이야기를 하자, 아주트는 매우 두려워했다. 그는 그게 무슨뜻인지 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가꾸미가 본 귀신을 항복시키지 못한것만은 알수있었고,반대로 그 귀신한테가꾸미가 잡힌게 아닌가하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아들에게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꾸미가 훌륭한 토른락을 잡은것이 틀림없다고만 얘기했다.

그해 여름철에 아주트는 죽고,그의 장례는 서리가 녹지않는곳의 바위밑에서 거행됐다. 그가 평소에 쓰던 활, 돌로 만든 담배 파이프, 그리고 다른 주문을 외는데 쓰는 물건들과 함께 묻혔다.

카쿠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즉 주술에 만족했고, 얼마 안가서 아버지의 몫을 담당했다. 마음이 병든자나 몸이 아픈사람들이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왔다. 카쿠트의 명성은 근처에 날로 퍼져갔고,위대한 주술가이며 좋은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가꾸미는 그렇지를 못했다. 그는 그호수의 얼음위에서 수련을 쌓은후로 소년시절부터의 부질없는 열망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이상스런 꿈은점점 더 생생하게 살아나 그를 가혹하게 짓눌러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귀신까지도 그를 막지못했다.

가끔 그는 호수밑에 살고 있었던 몸뚱이가 없는 백인의 머리를 불러볼까도 생각했었지만 자신이 그것을 지배할수 있을런지 몰라서 두려워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서 자기를 물속으로 데려가서 죽일런지도 모른다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가꾸미의 사냥은 신통치 못했고,또 그가 하는 일은 만사 재대로 되는일이 없었다.

(계속)

해외 걸작만화

"He's making the changeover from pool to golf…!'

『당구를 골프로 바꾸는군』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알 림—

지난 13일자로 광고된 "성산부흥사경회"는 본국에서 부흥사님(정문호 목사)의 출국지연 관계로 무기한 연기됨을 알립니다. 앞으로 정목사님이 도착하시게 되면 신문지상에 광고하겠읍니다.

전화 : (416)977-5202
743-662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토론토 성산교회
당회장 : 계화삼 장 로 : 이영일
제직원 일동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종합보험

김 흥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완全한新聞

"中共과 直接對話 용의"

金外務次官 국회답변
東京·北京 直航路線개설관련

金東輝외무부차관은 12일 국회外務委에서 답변을 통해『日本、中共간의 直航路線개설과 관련, 中共과 직접대화할용의가 있다』고 말하고『이문제는 中共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우리가 中共과 직접대화를 가질경우 日本과北韓과의 직접 접촉가능성도있기때문에 이문제는 신중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公務員 業體파견 硏修

金차관은 이어『현재 우리나라가 항공협정을 교섭중인 국가는 아시아 5개국, 中東 2개국, 유럽4개국, 中南美를 포함한 美洲지역6개국、아프리카 2개국등 모두19개국』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外務·內務·財務·文公·商工등 5개常委를열고 所管부처 업무보고 및 法案심의와 관련, 정책질의를 벌였다.

2단계機構축소

內務委

金容烋총무처장관은『정부기구축소로 6백여 고위직을 줄인것은 제1단계이고 제2단계로 1만3천여개의 정부기능을 조정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不必要한 행정기능은 3천개가되든 5천개가되든 줄여 정부역할을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기관급중 우수한 사람은 관련업체에 파견시켜 현실업무를 파악토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이에따라 각부처에서 현재50~90명을 人選중이며 이들의 파견근무가 끝나면 관련課長職을 補職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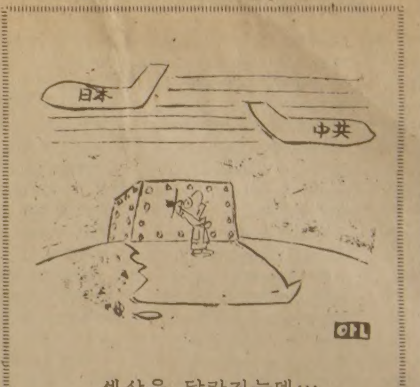
國會法改正案 處理안해
民正, 내년으로넘겨

民正黨은 與野간에 爭點이 되고있는 국회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않되 국회豫決委의 常設化와발언시간의 교섭단체별 制當制등을 검토하고 있다.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12일『정기국회를 운영해본결과 현행國會法이 의회활동을 위축시킨 흔적을 발견할수 없었다』고지적,『다만 몇가지 개선책이 요망돼 야당측과 정치적 절충을통해 국회법 개정심의 小委활동을 내년까지연장, 종합적인 국회운영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책의 하나로『豫決委의 專門化를 기하기위해 정기국회때만 時限附로 설치운영돼오고있는 豫決委를 常設위원회로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또『의원들의 重複또는 무제한 발언의 폐단을시정키위해 현행議席비율에따라 교섭단체별로 발언자수를정하는 방법대신 의석비율에따라 교섭단체별로 일정한시간만을할당, 교섭단체별로 발언자수를자체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社會漫評



세상은 달라지는데…

駐佛美大使車被襲
파리서, 채프먼大使는 塔乘안해

【파리12日AP合同=本社特約】크리스찬·채프먼 프랑스주재 미국대리대사가 탑승한것으로 보이는 대사관소속차량에 12일 상오9시(한국시간 하오5시)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파리경찰이 밝혔다.

그러나 이저격사건에서 부상자는 아무도없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미국대사관소속차량에는 당초 프랑스주재 신임 예반·갈브레이드대사가 탑승하고 있는것으로 믿어졌으나 미대사관측은 갈브레이드대사가 최근 프랑스국외에 체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低所得層 減稅방법 異見

國會 財務委 稅法개정안 審議難航

"人的공제 17만원" 주장 民韓
所得공제 百50·2百만원 맞서

국회財務委의 稅法審議13人小委(위원장 鄭順德의원)는 12일 정부와 民韓黨이 제출한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을 일괄上程, 구체적인 축조심사에 착수했으나 소득세법개정안중 최대의 爭點인 人的공제 下限線과 근로소득공제 下限線을 비롯, 여러가지 부분에서 與野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려 첫날부터 難航을보였다.

法人稅率 5천만원이하 21% 합의

이날 與野의원들은 低所得層의 租稅輕減원칙에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방법상에 있어 각기주장이 크게 엇갈렸는데 특히 人的控除額부분에서 民韓黨은 현행51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할것을 주장한반면 民正黨측은 현행수준을 유지할것을 주장했다.

또 소득공제액에 있어서 民正黨측은 정부案인 소득공제下限線82만원을 다소 올리는반면 上限線인 1백50만원은 그대로 유지할것을 주장한데비해 民韓黨측은 上限線 1백50만원을 2백만원으로 인상할것을 내세웠다.

또讓渡소득세의경우 民正黨측은 정부안인 기초공제90만원을 다소 上向조정할 의사를 비쳤으나 民韓黨측은 2백만원선으로 인상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稅法심사小委는 이날 법인세부분에대한 심사를 마쳤는데 法人稅率의경우 公開非公開기업에 共히 5천만원 이하는 21%선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小委는 이밖에도 법인세에 있어서▲移越缺損金은 3년내에 처리토록하고 分納제도에 있어 중간예납 또는 확정신고에 의한 납부稅額이 1천만원 초과자는 30일이내에分納할 수 있도록 하는한편▲移越缺損金은 3년내에 처리토록 하는등 정부안대로 확정했고▲紙上配當稅도 현행대로 存置시키는 반면 점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토록하며▲減價償却의 내용年數를 정부에서 재조정키로 했고▲소득표준율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위해 현재 국세청에 설치돼있는 소득표준율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재무부 측이 검토키로 했다.

이날 小委는 中小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액에대해年6백만원을 기본으로하고 出資金의 2% 收益金額의 0.1%까지 허용키로한 民韓黨案을 채택했다.

李文公 國會답변
자유로운立場서 취급된 北傀기사등
"외국刊行物 가위질 않겠다"

李光杓문공장관은 12일『앞으로는 北傀를 공공연하게 고무찬양하는 기사나 논설및 寫眞類가 아니고 자유로운입장에서 취급된 기사、논설、사진등을 게재한 외국刊行物에 대해 가위질이나 배포금지등을 하지않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하오 국회文公委에서『외국간행물 輸入배포에 관한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民韓黨의 辛相佑 李義永 林在正의원등으로부터『과거처럼 정부시책을 비판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계속 가위질하거나 배포를 금지하겠는가』란 질문을받고 이같이 말하고『국가를 전복할 목적이 아니라면 과거와는 달리 국가시책을 비판한 내용이있다 하더라도 그 간행물을 국내에 수입、배포하는데 있어 종전과 다른 기준으로취급토록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외국刊行物배포 法律개정안議決

국회文公委는 12일 民正黨의 朴源卓의원외 35명이 발의한「외국刊行物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原案대로 통과시켰다.

이개정안은 외국도서 수입업자에게도 무역거래법에의한 수출입업의 허가없이 외국도서를 수입할수 있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하고있다.

産油國개발계획 積極참여
盧外務 資源外交강화위해 經協서둘러

정부는「資源외교」의 확충을 위해 産油國의 경제개발계획에 적극참여하고 資源의 개발조사·개발협력사업에 官民합동으로 적극참여하는 등 資源保有國과의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盧信永외무장관은 12일 국회외무위보고를통해 이같이 밝히고 資源보유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위한 구체방안으로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有力인사의 訪韓초청을 강화하며 ▲자원교섭및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盧장관은 특히 資源의 장기안정확보를 위한 여건조성의 시급성을 강조,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10여개자원국과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인도네시아 사우디 칠레등과 二重課稅방지협정을, 그리고 泰國·말레이지아등 5개국과 投資보장협정을 서둘러 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세안(東南亞국가聯合)과의 협력증진에 관한 보고를 통해 韓·아세안간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더욱확대할 방침이라고밝혔다.

◇12일 국회 財務委稅法심사 小委는 所得稅法案에 대해 與野의 의견이 팽팽히맞서 難航을 거듭했다.

無事故운전사 26명 全대통령이 茶菓會

全斗煥 대통령은 12일 하오 청와대에서 25년이상 無事故운전자인 許辛五씨(60·釜山市東萊區釜谷洞293의26)등 3명과 20년이상 무사고운전자인 徐連滿씨(49·서울城北區敦岩洞407의51)를 비롯한 23명등 모두 26명의 무사고운전자들을 위해 다과를 베풀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자리에는 徐廷和내무장관、柳興洙치안본부장이 배석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訪韓중인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의 찰즈·파머 사무총장(美國人)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내년 職業訓鍊公團 신설

技能人力양성 資格검정관장 훈련기간 3년으로 늘려
84년엔 4년制大學도 설립

정부는 직업훈련·자격검정등 기능인력양성에 관한 모든업무를 관장할 직업훈련공단을 신설하고 4년제직업훈련대학을 설립하는것을 골자로한 기능인양성및 직업안정활성화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가 12일 발표한이 방안에 의하면 현재 1년인기능인력훈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사내훈련 대상업체도 3백인 이상에서 2백인이상 업체로 확대적용하며 직업훈련에 대한 시설투자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것이다.

내년2월중 노동부 산하에 특수공법인으로 설립될 직업훈련공단은 현재의 공공직업훈련과 기능검정기관을 통합, 직업훈련에서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이르기까지 기능인력 양성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된다.

3백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 설립될 이공단은 한꺼번에 3천22명을 수용하게되는데 사용자·근로자및 관계전문가등 20명이내의 이사진을 구성하게되며 정부는 이공단 설립을위해 특수직업훈련공단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종전 각관련부처별로 다원화됐던 기능인력훈련체계가 통일되어 기능올림픽을 포함한 기술검정공단·중앙직업훈련원·昌原기능대학및 24개직업훈련원의 업무가 일괄적으로 확립되게된다.

또 정부는 사내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업훈련용시설투자의 8~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공제해주고 투자소요액의 50%를 일시감가상각처리 해주는등 세제상의 각종혜택을 부여할뿐아니라 차관도 알선해줄방침이다.

오는 84년 신설될 4년제직업훈련대학은 5개학과 14개 직종에 걸쳐 연간 3백90명의 학사위소지 고급기능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이대학설립에는 1백5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서독정부가 58억원을 무상지원한다.

노동부는 또 지역별로 전문산업직종을 선정, 훈련을 특성화할 방침인데 82년중에는 光州에 내연기관, 晋州에 색、緞里에 전자、大邱에 염직포 84년에는 順天에 화학, 85년 全州에 농기구、木浦에 용접등 연차적으로 직업훈련을 지역중심으로 특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단순근로자와 개별적이동근로자를 위해 서울등 대도시영세민 집중지역에 1일 취업안내소 20개소를 설치운영하며 현재 1개소의 중앙직업안정소와 35개 지방사무소의 직업안정망을 86년까지 특수지역단위로 1백39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가정의 벗 한국일보

콜럼비아號 故障수리
「카운트·다운」시작
오늘 새벽 0時발사

【케이프카내베랄(플로리다州) 11日AP=聯合】美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2차발사계획이 또다시 연기, 12일밤12시(한국시간 13일상오 2시)께 발사될 예정이다.

美항공우주국(NASA) 관계자인 마이클·위크스씨는 콜럼비아호의 자료교신체제에 이상이 생겨 이 우주선의 2차발사계획이 당초 예정보다 2시간반가량 늦춰진 12일밤 12시께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NASA당국은 여러지역의 우주센터들및 각공업분야의 전문가들과 수시간에걸친 협의를 갖고 발사시간을 이같이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발사는 늦어도 13일상오2시까지는 단행될것이라고 덧붙였다.

NASA당국은 11일밤 콜럼비아호의 발사대에 일련의 수선작업을 펼쳤으며 당초 예정대로의 일출시 발사가 가능할것이라는 진단을 내린바있다.

【케이프카내베랄12日UPI=聯合】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2차발사가 12일밤12시(한국시간이날13일상오 2시 40분) 카운트다운이 재개됐다고 미국항공우주국(나사) 관계자들이 밝혔다.

관계자들은 왕복선 컴퓨터 및 지상관제소간을 연결하는 중요한데이타처리연결장치가 캘리포니아주의 자매선으로부터 차출된 새부품으로 교체된후 만사가 발사예정시각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地平線

만6살이 되면 국민학교에 들어가 6년간 재학한다. 교육법에 의하면 「만6세가된 익일이후의 최초 학년초로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이다. 이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6년, 대학이 4년, 再修·軍복무·대학원을 마쳐도 22세가되는 해에야 제대로 생긴 일자리를 찾아나서게된다는 얘기다.

▼법은 나이에 대하여 까다롭다. 법에 정한 나이는 曆에 따라 滿으로 계산하되 태어난 날을 算入한다. 다른 期間계산이 초일을 넣지않는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아기의 첫돌날은 1세가된 다음날이지, 만1세가 되는날이 아니다. 교육법에「만6세가된 익일」이란 뜻이다.

▼이렇게 법이 까다로운 까닭은, 나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에 의하면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기전의 胎兒로부터 嬰幼兒·兒童·少年·未成年·成年·노인등으로 다양하게 구별된다. 이에 맞추어 사회적인 대접 또한 달라지므로 꽤나 많은 연령관계 법규정이 있게 마련이다. 더하여 헌법에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여러법의 자격요건까지 합치면 그런규정은 엄청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처럼 법은「어머니 뱃속에서무덤속까지」나 이를 좇아 사람의 일생을 규제한다. 「만6세가된 익일」이전의 어린이는 嬰幼兒로 모자보건법의 보호대상이다. 만13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으로 취업이 금지된다. 만18세미만은 아동복지법의 兒童, 만20세미만은 소년법의 少年이며 이때까지는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라 담배피우고 술마시며, 「性도덕등 풍기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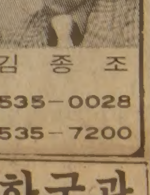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민법의 20세成年 규정이다. 만20살이 안되면 법률상 어른이 아닌것이다. 이때까지는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할수가 없고, 20살이 지나야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이혼이 가능하며, 이때서야 선거권을 얻는다. 하긴 국회의원피선거권은 다시 5년이지난 만25살, 대통령피선거권은 만40살에 주어지지만…

▼이같은 20세 成年은 「20日弱, 冠」이라던 우리 전통에 합치된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의 성장과정이 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숙성하다. 반면 교육기간이 길어져 독립하는 시기는 자꾸만 늦어진다. 早熟과 晩成의 갈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 정한 나이도 시체에 맞게 다시 훑어 볼 필요가 있다. 이번국회에서 많이 나온 成年나이 引下의견에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는 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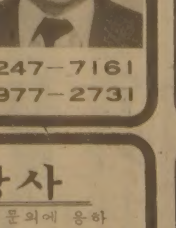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열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 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6-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Dear Mailperson :

Hi !
THE KOREA TIMES is a daily newspaper. I'm supposed to receive this newspaper every day.
Your co-operation will be much appreciated.
Thank you.
Mr/Mrs ○○○

◇이 편지를 우편함에 붙이십시오.

사우디 中東平和案 승인

페르시아灣 협력委 6개國 頂上會談 폐막

域內군사協力 적극모색

外勢介入 배격·經濟공동체 推進

【리야드11日WAM聯=聯合】 페르시아만협력회의(GCC) 6개회원국들은 11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한 8개항 중동평화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이를 아랍정상회담에 상정하고 ▲회원국간의 군사협력증진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을 경제공동시장으로 결속시킬것등을 결의한후 리야드에서 개최됐던 2일간의 정상회담을 폐막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바레인등 6개GCC회원국정상들은 이날 2일째회의에서 사우디가 지난8월 제의했던 8개항 중동평화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이를 오는25일 모로코에서 개막될 아랍정상회담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GCC정상들은 회의폐막과 더불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또 페르시아만의 안보는 이지역국가들의「독자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이지역에대한 어떠한 형태의 외세개입도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성명은 GCC회원국들이 이지역에 군사기지를 확보하려는 외세의 기도를거부할것과 아울러 초강대국들이 이지역국가들의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행위를 배격한다는 종전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성명은 또 GCC가 회원국상호간의 군사협력 문제를 검토한후 국방상회의를개최하여『통합군사개념』을확립하기로 결정했다고말했다。

이성명은 이어 아프가니스탄정세가『그지역의、평화와 독립만이 아니라 세계평화까지 위협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서 회교국회의가 아프간 사태와 관련하여 채택했던 결의들에대한 지지입장을 확인했다。

◇헤이그와만난 이 軍事사절단 사우디 아라비아의 중동평화안에 반대하고있는 이스라엘군사사절단이 11일 美국무성에서 알렉산더·헤이그국무장관과 만나 함께 포즈를 취하고있다。왼쪽부터 사절단장인 이스라엘국회국방·외교위원장 모이세·바렌스의원, 차임·헤르초그이스라엘노동당의원및 헤이그국무장관。【워싱턴11日AP電送=聯合】

이·埃종전立場확인 美등3國 팔協商

【카이로11日AP=聯合】이집트 이스라엘 미국등 3국간의 팔레스타인자치협상이 11일 카이로에서 재개되었으나 이집트·이스라엘양측이 종전의 그들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첫날회담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3국대표들은 카이로교외의 메나·하우스호텔에서 비공식대화를 나눈후 본격적인 회담에들어가 2시간동안 서로의 입장을 논의했다。

이집트관리들은 이집트측이 이스라엘에대해 유태인정착촌확장계획을 중단하는등 팔레스타인인들을 캠프데이비드 협상테이블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것을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측이 구체적인새로운 제의들을 내놓지 않았다고전했다。

요르단 이와 協商할용의 사우디 8개平和案 바탕

【예루살렘11日AP=聯合】후세인 요르단王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한 8개항 중동평화안을 바탕으로하여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벌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은 이같은 요르단측의 뜻을 이스라엘에 전해왔다고 이스라엘 국영방송이 11일 보도했다。

美·日 3軍합동훈련

B52機등참가…核적재관련 論難예상

【東京11日=聯合】미·일양국은 가까운 장래에 육·해·공3군에 의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일본방위청의 이시자끼(石崎昭) 훈련담당참사관은 이날 참의원에서 일본항공자위대와 美공군의 B52전략폭격기、E3A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의 훈련을 검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육·해·공3군에의해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일본항공자위대가 美공군B52機및 E3A와 합동으로 훈련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괌도에 상주하는 B52機는 핵폭탄적재여부와 관련、일본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군합동훈련계획은 현재 美공군과 日本항공자위대간에 사전조정을 하고있으며 내년중에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波 첫獨立기념 行事

自由勞組주도 30여년만에

【바르샤바11日UPI=聯合】1918년 국토회복을 기념하는 11일 공산당통치30여년만에 처음으로 폴란드인의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는가운데 폴란드 전국각지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폴란드 각지의 주요도시에서는 자유노조의 주도로 지난2일간 공식적인 기념행사가 벌어졌으며 수도 바르샤바에는 이날 赤·白色의 국기가 시가지를 수놓았다。

또한 과거에는 부르좌로 낙인찍혀 경원됐던 폴란드 독립의 영웅 요제프·필수드스키원수를 기념하는 일련의 행사가 당국의 명백한 승인아래 각지에서 치러졌다。

필수드스키원수는 1차대전후 폴란드를 이끌었던 민족주의자로 63년전당시 제정러시아와 프러시아 오스트리아등 3국에 의해 분할돼 있던 국토를 회복한 지도자이다。

波共黨 對勞組협상 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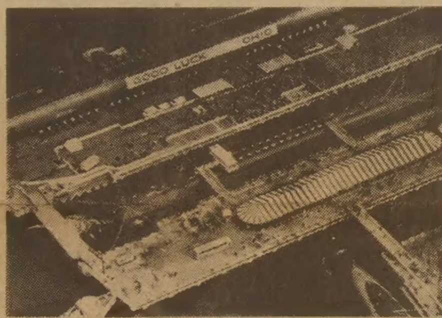
국내危機 극복위한「擧國前線」구성등

【바르샤바12日UPI=聯合】폴란드 공산당은 11일 현국내 정치·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자유노조와 새로운『거국전선』구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공산당 정치국내 실력자로 알려진 스테판·올조프스키는 이날 지난1918년 폴란드국토회복을 기념하는독립기념행사가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관영 PAP통신이 보도한 성명을통해 黨특별위원회가 앞서 야루젤스키 제1서기가 주장한『거국전선』의 구체적구성계획을 마련할것이라고 밝혔다。

올조프스키는 그러나 집권당과 모든 사회세력이 참여할 거국전선이 자유노조의과격분자들이 요구하고있는『연립정부』의 형태는 되지않을 것이며 또한 폴란드共產黨은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4일 정부와 자유노조、가톨릭교회 지도자간의 3자회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파업행위가 계속되고있는데 불만을 표명하고 만약 자유노조가 이들 파업을 단호히 억제하지 않으면 파업금지법에 호소하는수밖에 없을것이라고 경고했다。



◇美잠수함 오하이오號취역 美國최초의 트라이덴트級잠수함인 오하이오호가 11일 그러턴조선소에서「행운을빈다 오하이오」라는 대형현수막을 내건 姉妹船조지아號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취역식을 갖고있다。【그러턴(美코네티컷州)11日AP電送=聯合】

生化學무기 확인

유엔조사단、越軍캄領內서

【방콕11日UPI=聯合】인도차이나 지역에서의 생화학무기사용가능성을 확인하기위해 현지조사임무를 수행한 유엔특별조사단은 베트남의 지원을 받고있는 캄보디아군이 반정부세력들에 대해 치명적인 생물학무기를 사용해왔음을 입증하는「명확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서방외교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엔특별조사단은 베트남당국이 소련만이 보유하고있는 세균에서 추출한 독소인 황색비를 사용해왔다는 보고의 근원을 추적、라오스및 캄보디아에 접한 타이국경지대에 대한 10일간의 현지조사를 10일 끝냈다。

유엔조사단은 그들이 직접 조사한것에다 외교관들로부터 입수한 자료들을합쳐 생물학 무기사용에관한「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 특별조사단이 대량살상무기로 사망을 초래하는 황색분말이 들어있던 용기를 최소한 3개 획득했으며 이들 용기에는 모두 소련상표가 붙어있다고 말했다。

차드의 反政府軍 정부군과 激戰벌여

【엔자메나11日AP=聯合】차드 주둔 리비아군의 철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수단접경의 차드동부지방에서 이산·아브르 전국방상이 이끄는 반정부北軍(FAN)과 정부군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소식통들은 차드동부지역의 리비아주둔군이 대부분철수한뒤 지난48시간동안 이웃수단으로부터 아브르전국방상휘하의 반정부군이 국경넘어 침입、이날새벽 아만·아실외상에게 충성하는 정부군에 기습 공격을 감행、이리바와 아드르읍에서 격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안티과 바르부다 百57번째 유엔가입

【유엔본부11日AP=聯合】최근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카리브해의 도서국 안티과 바르부다가 11일 1백57번째 유엔회원국으로 가입됐다。

안티과 바르부다는 지난1일 英國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유엔총회가 이번회기에서 벨리세와 바누아투에 이어 3번째로 유엔에 가입했다。

減稅정책 놓고서 레이건또口舌數

豫算국장 "富者위한 트로이 木馬" 비난

◇예산문제에관한 회의를 주재하고있는 레이건 대통령㊧과 스토크맨예산 관리국장。

【워싱턴12日=許津煥특파원】미행정부의 외교정책수행팀간의 티격태격한「게릴라전쟁」말썽이 채 가라앉기도전에 이번에는 국내경제정책문제로 새로운 말썽이 일고 있다。

美아틀랜틱誌 12월호는 예산관리국장 데이비드·스토크맨이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부자들을 돕기위한「트로이목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토크맨 예산관리국장은「공급사이드경제」이론에 바탕을둔 감세정책은 공화당의 전통적 고소득층위주 경제의 위장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아틀랜틱誌는 밝혔다。

그렇지않아도 레이건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공격해온 민주당에게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격이 되었다。

예산관리국대변인은 스토크맨이 아틀랜틱기사의 필자인 워싱턴·포스트지부국장과 여러차례 회견한 것은 사실이나『오프·더·레코드』로 말했으며 그기사의 전반적 인상은 스토크맨의 말을 보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10일 기자회견을 마친후 아틀랜틱지기사에 관해 질문을 받고 그기사를 읽지 못해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11일에도 계속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 특히 TV는 빗발치는 언론의 논평요청에「부자를 위한 감세」논쟁을 외교팀간의「게릴라전쟁」논쟁이상으로 열을 올려 보도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앞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거나 묵살하고 있다고 오닐의장이 감세안을 두고 공격하자 레이건은『내 스스로가 가난한 가정에서 커왔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겠느냐』고 반박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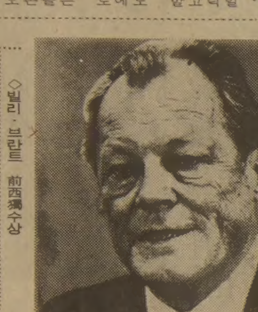
이논쟁에서는 레이건이 판정승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틀랜틱지 기사가 큰바람을 몰고오자 오닐의장은『행정부경제계획에 관한 그기사는 나와 비판자들이 지난6개월동안에 말해온 그대로를 시인한것이다』고 말했다。

외교팀간의「게릴라전쟁」은 레이건이 가운데서 중재를할 수 있었으나 레이건의 감세정책은 부자를 위한「트로이목마」라고 스토크맨의 말은 레이건이 중재조차 할수 없는 그스스로에 겨냥된 화살이어서 퍽 난처하게되었다。

美·蘇 2重간첩說 브란트、怒發大發

잭·앤더슨주장에 "政敵들의음모다" 반박



◇빌리·브란트 前西獨수상

【본11日AFP聯=聯合】빌리·브란트 前서독수상은 그가 1950년대에 미중앙정보국(CIA)과 소련국가안보위원회(KGB)를 위해 동시에 일한 2중간첩이었다는 미칼럼니스트 잭·앤더슨씨의 주장을「근거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장인 브란트씨는 12일자발간의 서독시사주간지 슈테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잭·앤더슨씨의 그에관한 11일자 워싱턴·포스트지폭로기사를 이처럼 부인했는데 앤더슨씨에 의하면 2차대전당시 노르웨이에서 기자로 활약했던 브란트씨가 1950년대 서부베를린에 체재하면서 CIA와 KGB의 2중첩자로서 CIA에는 동독과 소련에대한 중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서베를린 시장이되기전인 56년까지CIA로부터、급료를 계속 지급받았으며 그가 사민당내에서 경력을 쌓는데 지원을 얻었다는 것이다。

앤더슨씨는 그의 워싱턴·포스트칼럼에서 4명의 전직 CIA요원들과의 인터뷰내용을 인용했다。앤더슨칼럼은 브란트씨가 수상재직때 개인보좌관인 군터·기욤이 스파이용의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주 비밀서류를 보여주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폭로했다。

지난1977년 지미·카터 미대통령은 브란트씨가 CIA외 스파이였다는 워싱턴·포스트지 봅·우드워드기자의 폭로기사를 역시 근거없는주장이라고 말했다고 슈테른지 최신호는전했다。

그러나 슈테른지는 또한 브란트씨와 그의 사민당이 1956년까지 CIA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앤더슨칼럼을 보도하는 한편 앤더슨씨의 수석보좌관인 데일·반아타씨의 말을 인용、현재건강이 나쁜 헬무트·슈미트수상이 수상직을 사임할 경우 브란트씨가 후계수상후보로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나머지 제보자들이 폭로를 결심하게 된것이라고 보도했다。

슈테른지는 워싱턴의 브란트정적들은 브란트 전수상이 미국의 가장믿을만한 동맹국인 서독을 중립으로 이끌려고 기도했다고 오랫동안 의심을 품어왔으나 그반면에 미국무성독일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브란트동지들은 서독과 미국내의 극우세력이 브란트를 제거하려하고있다고 믿고있다고 보도했다。

戀愛결혼은 좋고 同居는 認定안해

인사이드

中共 국제結婚사례들어 同居여인 實刑발뺌

【北京·파리AP·AFP11日=聯合】 프랑스 외교관과 동거중이던 한 중공여성이 최근 실형선고를 받은것과 관련、佛—중공양국간에 커다란 외교적 마찰을 빚고있는 가운데 중공은 11일 北京주재 프랑스대사관 경비원과 한 중공여공의 국제결혼사실을 발표하여 또다른 화제를 낳고있다。

이날 北京주재 프랑스대사관 경비원 크리스티앙·갈리아노씨와 北京의여공 자오·지앙양이 지난10월9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중공측의 느닷없는 이발표는 중공통이자 反체제문제전문가인 프랑스외교관 엠마뉴엘·벨르프루와씨(33)와 北京의 외국인거주지역내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해오던 반체제 전위화가 리·슈앙양(24)이 지난9월9일 10명의 사복경찰관에 체포돼 지난주 2년간의 노동개조교육형을 선고받은 문제와 관련、양국외교가 큰시련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나온것이다。

北京의 관측통들은 중공당국이 벨르프루와 리·슈앙두사람의 사랑을 깨뜨리고서 갈리아노와 자오·지앙의 결혼을 발표한 것은 통상적인 연애결혼과 벨르프루와 리·슈앙간 사랑의 경우를 엄밀히 구분하려는데 숨은 의도가있다고 지적했다。

갈리아노와 자오·지앙의 결혼은 프랑스·중공간의 첫번째 국제결혼케이스로 北京에서는 아직 이들의 결혼에 관한 공식발표가 나오지않고있다。

갈리아노는 이날 AFP통신 北京지국과의회견에서 자오·지앙으로부터 결혼허락을 받는데 꼬박 다섯달이걸렸다고 고충을털어놓으면서 그러나 중공당국으로부터는 큰어려움이나 반대를 받지않았었다고 말했다。

르·파리잔 프랑스·스와르등 프랑스 유력지들은「북경신부문제、국가문제로 飛火」「북경과 파리간에 조그만 외교적 파고」등의 제호아래 이번사건을 연일 크게취급하고있다。

◇중공 여류화가 리·슈앙양(25)과 프랑스인 연인 벨르프루와씨(33)。리양이 2년 노동改造교육 선고를 받아 다정하던 연인은 웃음을 잃어버렸다。【AP】

海外토픽

黑人出産 白人의倍
★南阿共 강제制限경고

남아공의 한고위보건담당관리는 흑인들의 출산율이 인구1천명당 백인의 16명보다 배가넘는 35명이라고 지적하고 흑인들이 자발적인 가족계획을 하지않을경우 강제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할지도 모른다고 경고。

보건·복지및 연금국장인 드·비르 박사는 이와같은 가족계획실시 구상이 흑인수를 줄이기위한 백인들의 발상이 아니라、인구통계학적 필요성에 연유한 것이라고 설명。

비르박사는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흑인들은 산아제한 문제에대한 태도를 많이 바꾸고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너무많은 흑인아이들 때문에 산아제한문제가 여전히 중요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강조。【케이프타운(南阿共)=UPI】

化生武器 탈출懸賞
★운반조종사에 10만弗줘

미국의 한잡지사는 아프가니스탄·라오스또는 캄보디아로부터 생화학무기를 운반하는 조종사가 기체와 함께 탈주해올경우 10만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제의。

「운명의 병사」라는 이잡지의 편집인 로버트·브라운씨는 아시아지역공산군의 화학무기사용설에 관한 미상원의 한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기자회견을통해 인도차이나에서 수집된샘플의 과학적분석과 탈출난민들의 입을 통해 나도는 화학

阿 심각한食糧위기
★현사태계속땐饑餓배증

【로마11日AP=聯合】지난20년간의 식량부족추세가 향후계속될경우 기아에허덕이는 아프리카人의수는 오는85년 현재의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미월라 잠비아 농업수력개발相이 10일 경고했다。

미월라장관은 이날 로마에서열린 제21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연설을통해 이같이 말하고 오는21세기초 사하라以南 아프리카人들의 최소생존을위해 2억톤이상의 식량수입이 필요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독립투사 李基仁翁 91歲로 自宅서별세

독립유공자 李基仁씨가 11일 상오 6시30분 서울 城東區 中谷洞47의2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향년91세。

李씨는한일합방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옥고등을치르며 독립운동에 투신했었다。

발인은 15일 상오8시이며 장지는 경북星州郡 星州邑 마을동 선영。☎46·6266。

메아리

山의 自生力

「非山非野」。미국 동양사학자의 눈엔 한반도 지형은 이렇게 비친 모양이다。라이샤워와 페어뱅크교수등이 공동저술한 동양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薄土에 가까운것으로 표현 되었다。

평야보다 山地가 훨씬 많고 그나마 쓸모가 적은 돌산이 전국 곳곳에 솟아있다。사실 국토면적의 67%가 산림이다。그러나 우리는 삼천리금수강산을 자랑하며 살아 왔다。말 그대로 비단에 수를 놓은듯한 국토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찾아진것일까…。그것은 푸른산과 푸르른 강물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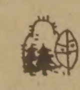
자연법칙은 정직하다。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나무를 심고 가꾼 정성이 푸른산으로 되살아났다。벌거숭이 산이 비단옷을 다시 둘렀다。

지난 60년대 유엔의 한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심각한 연료난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풀을 베고 어린 나무를 잘라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고 지적했다。불과 10여년사이에 눈에띄는 변화가 일어난것이다。

산림녹화를 위해「입산금지」같은 경고적표어가 이젠「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라는 경지에 이르게 의젓해 졌다。산사태 비극이었던 60년대에 비해 단위면적의 林木축적비율은 2배로 늘었다。헥타당 林木이 18㎥에 달했다。

그렇지만 山林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 까마득한 느낌이 든다。林木축적 비율은 헥타당 스위스 2백26、서독 1백38、일본 70、미국은 60㎥가 넘는다。

산림청 조사중 가장 고무적인 결과는 우리 산이 自生力을 회복했다는 점이다。우리의 관심은 이제부터「입산자원」이라는 각도에 초점을 맞춰가야겠다。



우리나라 목재소요량은 한해 1천만㎥이상이나 된다。수요증가와 함께 자급률은자꾸떨어졌다。1차10개년 조림계획이 끝난 78년에 국내 임산물에 의한 목재 자급률은 12%밖에 안되었다。90%가까이는 외국에서 수입해와야 한다。

원목수입에 드는 외화가 1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수입사정도 그리 쉽지가 않다。산림국의 수출억제와 자원보호정책으로 원목을 사들여오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형편이다。

푸른산도 좋지만 쓸모있는 산을 생각할때다。경제림에 대한 투자는 멀리 2천년대를 내다보는 안목이 요청된다。우리가 오늘 가꾼 경제림은 바로 후손들의 富로 돌아갈것이다。

SAI WOO레스토랑
(西湖酒樓)
SAI WOO

「1954년에 설립된 토론토의 가장 훌륭한 중국음식점」

온갖 중국음식을 제공 합니다.
— BUSINESS MEN'S점심
— 파티및 연회환영
— TAKE OUT써비스
— 가족 저녁식사 제공

월~토 : 11:30~2:00
일요일 : 11:30 ~1:00

130 DUNDAS ST.W.
(던다스×베이)
☎: 977-4988~9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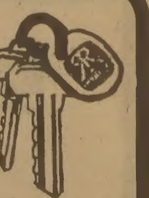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 시 성
(B)497-0600
(R)298-8558
D.F.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핵가족·시멘트文化속 老人들은 외롭다

전국에 60세이상 노인 2백30여만명

노인들은 외롭다。특히 핵가족의 보편화、아파트인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다。최근에 늘어나고있는 노인들의 자살이나 가출은 시멘트문화속에 안주하지 못하는 노인네들의 사정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경찰조사에따르면 한해에 서울에서만도 12~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출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들이 가출 또는 자살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유복하게 살고있으나 상대를 해주지않는 소외감이 가장큰 원인이 되고있으며 ▲자식이나 며느리등 가족들사이의 심한갈등 ▲자녀들이 잘보살펴주는데도 매사에 구박한다고

대부분 「가정떠나 살고싶다」… 일자리희망은 43·7%

자녀유복해도 상대안해줘 소외감

위락시설 老人亭도 빈약 가출늘어

노엽게 느끼는 자격지심▲전혀 보호를 받지못하는 생활고 ▲자식들의 구박등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문제는 경제선진국인 구미·일본에서도 이미 큰사회문제로 대두돼 정년의 연장、노후복지대책 및 시설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인문제에 관심을 덜 갖고있는 실정이다。

뒤늦게나마 노인복지법이 제정돼 지난5일 공포됐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않아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있다。

또한 생활이 빈자나 무의탁노인을 보호하기위한 수용시설도 극히 빈약하다。시립양로원이 서울、춘천、경기등 3개소에 불과하며 사설양로원이 45개에 이른다。여기에 수용된 노인들은 3천1백36명。수용능력부족으로 많은 무의탁노인들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다。

서울시립양로원의경우(道峰區上溪洞) 20년전에 건립된 1천2백평의 건물에 97명이 수용돼 있으며 청운양로원에 96명、청암양로원에 77명이 보호를 받고있다。이들에게 지급되는 식비는 한사람이 하루 양곡 5백70g 부식비 2백65원이지급되고있으나 요즘 물가가 비싸 크게 부족된다는것이다。

한번 양로원에 들어가면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기때문에 빈자리가없어 여기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줄지어있다。

자녀들과 별거、양로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은데도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일자리를 구해주는 대책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새로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사설양로원에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고있지만 재정형편상 적극적인 지원은 어려울것이라는것이 관계 실무자의 말。

대한노인회 총무부장 金弘洙씨(50)는 핵가족제도등 급진적인 사회구조변화로 비교적 환경이 윤택한 노인들중에서도 자녀들과 가족들사이의 소외감으로 가정을 떠나 살고싶어하는 노인들이 상당수에 이르고있으며 특히 도시지역노인들은 일거리도 없고 휴식처도 없어 수용시설에 보호받기를 바라고있다고 밝혔다。

노인회에 따르면 60세이상노인은 2백30여만명。이가운데 30%이상이 보호받거나 부양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노인회측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노인들의 생활을 돌봐주고 직장을 알선하거나 복지시설을 마련하는등 노인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할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金貞順교수는 노인보건문제에대해 전체노인의 38%가 만성질환을 갖고있다고 지적하고 노인들에대한 값싸고 편리한 보건체계가 아쉽다고했다。

또 전국병원에 입원한 60세이상 노인환자중 28%가량이 인병환자로 밝혀져 이들에대한 보건관리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문제연구소는 서울시내 노인정의 4백51명을상대로 노인취업문제에대해설문을 조사한결과 1백97명(43·7%)이 일자리를갖기를 희망했으며 1백55명은 건강만 허락되면 일자리를 갖겠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노인들은 일하기를 바라고있고、자녀들과독립해서 살기를 원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고있는 노인정의 시설불편을 지적했다。이들은 노인정에 목욕탕도 의료시설 이발소 냉난방 시설등 후생시설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 蘇에 져

월드컵 女子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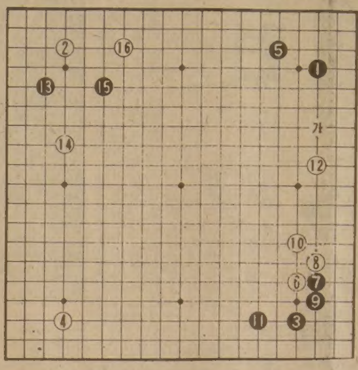
【東京=聯合】한국이 4패로 연패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일본 후까이도 미자와(岩見澤)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제3회 월드컵 여자배구선수권대회 4차전에서 한국은 蘇聯과 제3세트 듀스를 펼치는 접전을 폈으나 스트레이트로 패배、지금까지 4게임서 한세트도 따내지못하고 연패를 기록、충격을 안겨주었다。

蘇聯 (2승2패)	3	16 15 15	0	한국 (4패)
		14 6 11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第1譜 1~16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河燦錫〈1敗〉
黑(7段)徐奉洙〈1勝〉

그림같은 집을 짓고

徐奉洙7단은 지금 曺薰鉉8단과 도전대국을 자그마치 10판이나 계속 두게되었다。즉 國手戰(5판)과 最高位戰(5판)이 공교롭게도 겹쳐서 번갈아 두어야하는데 10월29일의 國手戰제1국은 도전자인 徐7단이 執黑勝、계속되는 11월4일의 最高位戰은 도전자인 曺8단이 역시 執黑勝하여 「영원한맞수」의 팽팽한열전에 돌입한 느낌이다。

國手戰제2국은 11월11일(本稿마감날)、제3국은 11월29일。그리고 最高位戰제2국은 14월14일에 두게되어 있거니와 우선 양자가 각기黑으로 이긴데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때 중단되었던 「執黑者必勝」의 징크스가 再演되는가 싶어보이기 때문이다。특히 얼마전 來韓한 日本의 원로 坂田榮男9단과의 기념대국을 曺·徐가 다같이 패승한직후의 일이라서 이들 숙적간의 대결은 한층 흥미와기대를 걸게된다。

그런데 묘한것은、徐7단은 본선리그에서 姜勳4단과 동률재결승전을치렀고、曺8단은 最高位戰 토너먼트패자전에서 부활하여 張秀英5단과 재대결한일이다。참고로 이바둑은 그도전대국에 앞서두어진 것이다。

黑1이하 白12까지 포석의보기와도 같은것이어서 잔잔한 孫流처럼 거침이 없다。다만 한때 유행했던 中共式布石이 자취를 감추고 다시금 옛날포석으로 환원되어가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좌상귀를 黑13으로 걸치고 白14하 16까지도 순조로운 흐름이다。「그림같은 집을 짓고…」하는식의 깨끗한 布陣인데 그러나 黑13은 「가」자리도 보통 생각하게 되는곳이라고 한다。

黑17은 좌변에 둘것같은데 과연 어떨까。徐7단은 곰곰 생각한다。【一凡】

慶北의 「全區間1위」 野望을 깨뜨리고

서울、秋風嶺코스서 首位

◇朔風을 무릅쓰고 北上 金泉역앞을 출발, 제4일레이스에 나선 6개시도 선두주자들。서울의 李洪烈(92번)을 비롯, 6명중5명이 소구간신기록을 세웠다。【京釜大驛傳취재반】

4번先頭바꾸며 두팀 區間新

高校生 4명뛴 京畿3위

27回 釜山·서울大驛伝경주

小區間新 9개 나와

新人참가로 갈수록 熱氣

【大田=京釜大驛傳취재반】京釜大驛傳 27년사상 처음으로 전구간 수위를 차지하려던 慶北의 야망은 복병 서울에의해 깨어졌다。慶北의 독주를 막으려는 각 시도의 경쟁은 金泉-大田구간에서 더욱 가열되어 구간엔신 기록 2개、소구간신기록 9개가 量産되었다。京釜역전 4일째를 맞은 12일 金泉-大田간93·9㎞코스에서 서울과 慶北은 4차례나 선두가 뒤바뀌는혼전을 벌인끝에 서울이 4시간52분34초로 大田에 1위로 골인했으며 慶北은 48초뒤진 4시간53분22초로 2위로 골인했다。

그러나 釜山-大田간(317㎞)종합기록에서는 慶北이 16시간1분03초로 계속 선두를 유지했으며 서울은 이날의 분전으로 京畿를 따돌리고 16시간9분08초로 2위에 올라섰다。

이날 각팀들은 신예선수들을 대폭 기용、레이스에 기복이 심했으며 고교선수 4명이 뛴 京畿는 이들의 부진으로 서울에 4분10초가 뒤져 3위로 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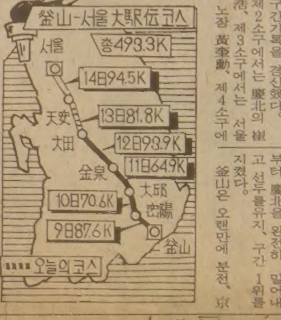
이날 1위서울과 2위慶北의 기록은 모두 종전 京畿가 수립한 4시간55분17초를 경신한 대회신기록이었다。

金光元 金泉시장의 출발신호로 金泉역앞을 출발한 6개시도선수들은 제1소구 金泉-新岩간에서 치열한선두다툼끝에 1위의 李洪烈(서울)부터 5위成弘根(경남)까지 모두 38분50초의 종전소구간기록을 경신했다。

제2소구에서는 慶北의 崔東浩、제3소구에서는 서울의 노장 黃奎勳、제4소구에서는 慶北의 蔡鴻洛이 선두에나서는 격렬한 접전이었다。

서울은 제7소구의 嚴淳鉉부터 慶北을 완전히 밀어내고 선두를유지、구간 1위를 지켰다。

釜山은 오랜만에 분전、京畿를 제치고 3위로 골인했다。



培材、善隣꺾어

서울市高校야구

서울시 고교야구 추계리그전이 12일 17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개막、첫날C조경기서 培材高는 善隣商高를 7-2로 대파、1승을 기록했다。졸업예정 3년생들이 빠진가운데 내년시즌에 대비한 새 멤버들로 대결한 이날 경기서 培材는 안타수 14-7의일방우세를 보였다。처녀출전한 신생팀 五山高는 강호 中央高에 17-1、5회 콜드게임으로 졌다。

◇제1일전적

▲A조

덕수상고	0	0	0	2	0	0	2
동대문상고	0	3	5	1	0	3	12

▲B조 〈5회콜드게임〉

중앙고	1	2	5	2	3	17
오산고	1	0	0	0	0	1

▲C조

배재고	0	0	0	1	1	0	2	3	0	7
선린상고	0	0	0	0	0	0	1	1	0	2

東亞大팀 대승

韓日 대학야구

【東京11日=聯合】釜山 東亞大야구팀은 11일하오 日本후꾸오까(福岡)시의 산업대학구장에서 가진 후꾸오까工大팀과의 대전에서 5-2로 승리했다。

日 國際여자體操 한국選手團 파견

대한체조협회는 12월 日本나고야에서 벌어지는 주니찌(中日)컵 국제여자체조대회에 李德紛씨(世宗大교수) 崔淑姬씨(국가대표팀코치) 李順禮(수원여고) 鄭鎭愛(청주여고)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키로 했다。선수단은 30일 출국한다。

忠義대北韓戰 늦춰 14일밤 10시45분에

14일하오7시(이하한국시간) 열릴예정이던 제14회 킹스컵쟁탈 국제축구대회 예선B조 한국(忠義)-북한의 경기는 하오10시45분에 열린

한국일보

流星의 賦 〈23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秋風何處至 ㉛

대배를 연거푸 마시고도 하석의 마음은 개지 않는 듯

『홍공、전라도엔 곡성이 나지 않는 마을이 없고、불무곡성촌(不無哭聲村)이며、형사한 사람의 무덤이 도처에있어、불무형사묘(不無刑死墓)이니 추풍하처지(秋風何處至)일까 망연무고월(茫然無孤月)하는 심정이더라』고 읊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다。

『전라도라면 인심이 순후하길 수없이오、인정이 곱기로 무비지지(無比之地)였소。전주(全州)와 나주(羅州)가 있어서 전라도라고 부른것이 아니라 오로지 비단같은 인정이라고 해서 나는 전라도란 이름에 애착하고 있는 터이었소。내 비록 영남인이긴 하나 사위는 전라도에서 보고、며느리 또한 전라도에서 보려고 소원하고 있는 터요。전라도의 민심과 인정을 알려면 과객(過客)들에게 물어보면 알 터이지만 과객에 대한 대접은 참으로 융숭하였소。그런데 금번 전라도를 지나오는데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소。낯선 사람을 재웠다가 무슨 후환이 있을지 모르니 당연하지 않겠소이까。마음을 열 수가 없는데 어찌 대문을 열겠소이까。나는 설움에 복받혀 눈물까지 흘렸소。먹고 잘 곳을 찾으려면 주막과 기방(妓房)이 있으니 걱정될 것 없지만、가는 곳마다의 선비를 만나 청담(淸談)하며 오는 여정(旅程)이 그렇게 기쁠수가 없는 것이어늘 그렇게 되지 못하니 서러웠다는 얘기요』

『과히 전라도의 사정을 짐작할만 하구료』

하고 계남도 하석과 한숨을 합쳤다。

『보다도 나는 앞날을 걱정하오。조정이 전라도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인재의 등용은 기하기 어려울 것이고 백성의 화합은 이룰수 없을 것이오。조정의 높은 벼슬에 있는 자 마땅히 이 일을 생각해야 하는것이어늘 과연 그런 선견지명과 치자(治者)의 혜(慧)를 구할 수 있으리까』

계남은 하석의 식견과 원려(遠慮)에 새삼스럽게 감복했다。사실이지 전라도의 민심을 수습하지못하면 선정(善政)을 기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하석의 말은 계속되었다。

『민심 즉 천심이라면 전라도의 민심이 곧 천심의 반을 차지하는 것이오。언비를 타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면 그렇게 되지 않겠소이까。조정에 명식(明識)이 있는 자 있으면 반드시 전라도의 사정을 긴급히 감안해야 할것이오』

『지당한 말씀。아뭏든 나는 옥사가 끝나길 서둘러야 할줄 아오。옥사가 이렇게 끈다는 것은 좋지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홍공의 말씀이 옳소。한데 이곳 안성 사람으로서 금번의 옥사에 연루한 사람은 없소?』

『왜 없겠소만 그때문에 고읍이 시끄러울 정도는 아니오。한데 졸재(拙齋)가 조헌을 두둔했다는죄로 귀양살입 갔소이다』

졸재란 홍선민의 호이고 조헌은 공주인으로서 강직하기 짝이없는 선비이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직언을 서슴지않는 사람이다。그런 까닭으로 해서 임금으로부터 심한 미움을 사고있었던것이다。

모눈종이위의 生 ⑲

趙善作 作 金光培 畵 〈252〉

『불안하긴? 그렇지 뭐。쓰기 위해서는 늘 가벼운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봐』

『그래도 그렇지 얘。한달이면 절반도 집에 안 계시다니 내가 그렇다면 아마 신경쇠약에 걸리겠다。아참、그때 그 얘기 좀 해봐 왜 정릉에선가…』

순간 나는 신경이 온통 머리끝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이었다。군자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시선이 아래층 부인과 한민일씨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고、한민일씨 부인은 부끄럼을 탄 듯한 목소리로 어물어물했다。

『그게 무슨 좋은 이야기라고…』

『아냐。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너무 쇼킹할거야。세상에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을까도 싶고…』

그녀가 이번에는 군자와 내쪽을 향했다。

『얘네 아빠가요、글을 쓰러 정릉인가 어디 산장을 빌어 들었는데요、자다가 깨보니까 옆에 낯모르는 여자가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옷을 모두 벗고 말예요』

『어머、어머?』

하고 군자는 거의 기절할 듯 놀라서 한손으로는 내 무릎을 치며 아래층 부인과 한민일씨의 부인、그리고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그래서…혹시 유령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왜 옛날 얘기에 그 비슷한 것이 많잖아요?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이 될려고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얘 아빠가 혼구멍을 주어 내쫓았는데 알고 보니 유령도 여우도 아니고 멀쩡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 그런여자를 가만 두었어요? 어디 정신병원에 처넣든지 해야지』

군자가 다시 말했고、차라리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나는 군자네 아래층 부인의 입을 막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곳에 온 것은 결국 이런 말을 듣기위해、그리하여 내 충동적인 논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란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가만히 한민일씨 부인의 표정을 훔쳐 보았는데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공연히 친구에게 해주었다고 후회하고 있는 듯했다。그래도 한민일씨부인의 친구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런데 아주 상습범이었던가 봐요。얼마 전에는… 얘。시쓰시는 분이라고 했지? 그런분의 아파트에도 똑같은 여자가 들어왔고、또 영화감독 어떤 분도 당했다고 그러고…그밖에도 당한 분들이 소설가 시인할것 없이 아주 많은가봐요。싫은 나 이런 얘길 처음 애한테서 들은건 아냐。다른 데서 들은 건데 얘네 아빠도 당했다는 소문이어서 캐물었더니 겨우…한동안 장안에 화제가 됐었나 봐요』

『어떻게 그런 여자가 다 있을까요?』

『문학에 미친 여자가 길을 잘못 들었지 뭐』

『별 여자도 다 있네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늘 충고하는 말인데、아빠를 절대 외박시키지 말라고。남자란 집만 떠났다 하면…』

『그만두자』

그때까지잠자코 듣기만 하던 한민일씨의 부인이 친구의 말을 잘랐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때 난 아내란 뭐냐、함께 자주는 댓가로 그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염치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하고。나도 물론 그가 불쑥 외박을 하고들어올때마다 보통으로 소란을부리는 여자는아니데 한바탕 그러고 나면 언뜻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거야』

『뭐하러 그런생각이 드니?』

아래층 부인이 삐쭉해서 말했고 군자도 한마디 거들었다。

『절대、그냥두면 안돼요』

빅세븐선물센타 (구아세아 선물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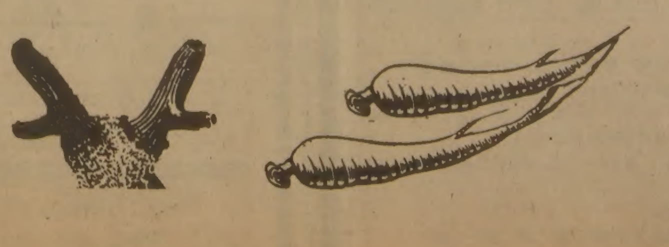
—GOOD NEWS— 〈기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동안 교민 여러분의 성원속에 날로 성장해온 아세아 선물센타는 금번 위와같이 「빅 세븐 선물센타」로 상호를 변경하고, 아울러 "중국본토"로부터 직수입한 「각종 한약재」와 한국의 최고급 「인삼」을 교민여러분께 특별대매출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한약〉

중국길림 흑룡강녹용 1냥	$59.
십전대보탕 1첩	$8.—
북경로얄제리 100정(2병)	$20.—
편자황(진품100%)	$290.—

우황청심환, 호른환, 웅담, 북경산 위장약등 각종약재, 녹용정



〈밍크및 각종털제품 염가매출〉
●각종 물개가죽 핸드백
●불루·폭스, 레드·폭스, 실버·폭스 목도리및 칼라.
●밍크 숄, 밍크자켙
※이외에도 각종 선물용 구비했음.

6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 옆) TEL : 533-7966 대표 김 영 철

택시등 百94대 運行停止

交通部 택시百38·화물차56대 면허취소도 5대

2件이상 인사事故

사고를 많이 내는 운수업체에 대해 감차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교통부는 올들어 9월말현재 전국에서 13개회사의 일반택시 27대에 대해 10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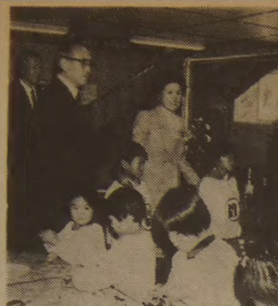
또 개인택시 5대, 한시택시 1백6대, 화물차 56대등 모두 1백67대가 2건이상의 인사사고를 내 10일간 운행정지를 받았으며 화물차 2대, 한시택시 3대등 5대가 각각 3건이상의 인사사고를 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경기11, 전남·경북이 각각 1개회사이며 차량처분대수는 서울52대, 부산23대, 大邱8대, 경기4대, 강원3대, 충남12대, 전북29대, 전남15대, 경북13대, 경남7대, 제주6대등이다.

【光州=聯】全南道는 12일 교통사고 지수가 9이상인 光州市北區新安동 서광교통과 삼성교통등 2개의 택시운수업체에 대해 2대씩의 감차 처분을 내렸다.

道는 교통사고 지수가 7을 넘었을 경우에는 택시회사 보유대수의 5분의1에 해당하는 대수를 10일간씩 영업정지하고 9이상일 때는 감차처분한다는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이날 감차처분을 받은 업체의 사고지수는 서광교통이 9·0, 삼성교통이 9·2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膳物 李順子여사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12일 하오 서울 九老區始興2洞 탑골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 개원테이프를 끊고 유아복과 크레파스등을 유아들에게 선물했다. 【사진】

어제 첫「無事故운전자의날」 有功者선발 표창

치안본부는 12일 제1회무사고 운전자의날을 맞아 서울시민회관에서 10년이상 무사고운전자 2천3백71명을 표창하고 20년이상 무사고운전자 26명에게 택시(포니) 1대씩을 부상으로 주었다.

또 2만18명의 유공운전사를 선발, 각시·도별로 표창했고 수상자위안 카퍼레이드도 벌였다.

東萊區廳 환경課長 2백만원賂物 拘束

【釜山=聯】釜山지검수사과는 12일 당구장허가를 미끼로 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釜山市東萊구청 환경위생과장 李國成씨(4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준 辛有基씨(42·釜山市東萊區長箭2洞360)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無事故42년 택시1대 副賞

—첫「운전자의날」표창받은 金元泰씨

19살때 핸들 잡아 還甲맞는 해에

비결은 매일밤「운전日記」쓰며 반성

『공식 기록상으로는 27년4개월이지만 실제로는 42년 무사고지요』 12일 제1회 무사고운전자의날 25년이상 무사고로 교통삼색장과 함께 택시(포니) 1대를 부상으로 받은 개인택시운전사 金元泰씨(61·경남1바6907호)는 일평생 운전대를 잡은 모범운전사.

14살때 형이 살고 있던 日本으로 건너가 자동차정비공으로 일하다 19살때일본大阪에서 운전면허를 딴 金씨는 해방과함께 귀국, 그이후계속 운전만해왔다.

환갑을 맞은 해에 상까지 받아 기쁨이 넘친다는 金씨의 평생 무사고비결은 양보와 교통법규 준수.

金씨는 매일 저녁 잠자기전 30분동안「운전일기」를 쓰면서 하루중 어느곳에서 사고를 낼뻔했으며 어디를 지날때는 무엇을조심해야한다고 기록, 좌우명으로 삼았고 달리는차우위에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 가족처럼 생각, 조심했다.

42년동안 핸들을 잡으면서 애환도 많았지만 가장 보람스러웠던 일은 忠武~晉州간 버스를 운전할때 시골학생들을 무료로 태워주었던일. 너무 고마운 탓에 학생들은 金씨를「아버지」라고 불렀고 졸업생들이 돈을모아 양복한벌을 해주었을때는 눈물이 났다고. 또가끔무료로학생들을태워 정원이 초과했을때 교통순경이 단속하면 학생들이 차앞을 가로막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위해 정원 [illegible]

4년전부터는 忠武市모범운전사회장직을 맡아 명절때면 고아원을찾는등 불우한 청소년돕기운동에도 앞장섰다.

쉬는날이면 거리질서확립운동에도 참여, 후배들의 운전태도를 바로 잡아주는게 낙이 됐다는 점도 강조한다.

생활신조를 승객위주로 서비스하는데 두고 살았다는 金씨는 동료나 후배운전사들이 잡념, 사리사욕없이 성실한태도로 운전하면 사고는 나지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막내 基仁군(20)이 대학을 졸업할때까지만 핸들을 잡겠다는 金씨는 소원이 있다면 모든 운전자들이 무사고를 기록, 자신처럼 택시1대를 탈수있도록 평소노력해주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홍】

◇42년동안 무사고로 교통삼색장과 부상으로 택시 1대를 받은 모범운전사 金元泰씨。

自律的 임금引上유도

權勞動장관 내년 가이드라인 設定안해

權重東노동부장관은 12일 『정부는 내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권고 또는 규제를 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임금인상은 노사간에 자율적인 결정을하도록 유도할방침』이라고 말했다.

權장관은 이날상오 기자회견을통해 최근 내년도 임금인상률에관한 사용주측인 전경련과 노총측의 주장에 언급, 이같이 말하고 『임금인상은 노사가 상호이해하고 기업의유지및 생산성향상을 고려하여 노사협의에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權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는대신 가능한한 근로자를 최대한 보호하는선에서 임금인상을 행정지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企業도산 流言蜚語 大邱地檢 구속방침

【大邱=聯】大邱지검 특별수사부 朴永漢부장검사는 12일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기업경영이 악화되자 일부기업인들사이에 『특정기업이 도산된다』는등의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고있음을 지적, 이날부터 大邱시경과 합동으로 수사를 펴고 있는데 적발되면 신용훼손및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키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유언비어는 특히 주택업계와 섬유업계에 많이 나돌고있으며 최근 S섬유의 경우 당좌대월도 쓰지 않는 건실한 기업인데도 『수십억원의 부도를냈다』는 소문이 나돌아 회사측이 이를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南北축구팀團長 1시간對話

킹스컵大會개회식 함께觀覽

"서울五輪엔 單一팀만들자"

"金日成다음은 金正日이다"

【방콕11日=聯】한국이 88년올림픽을 유치한후 처음으로 스포츠의 南北대결이 벌어지는 14회 킹스컵축구대회의 개막일 남북한축구팀의 두단장은 이례적으로 본부석에 나란히앉아 입장식을 관람했다.

푸른색바지에 상아색상의를 입은 한국 忠義팀의 尹泰均단장은 본부석에 먼저와 앉아있던 검은색 상의차림의 북한대표팀단장 강덕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잠시후 알파베트 순서에따라 북한팀이 濠洲팀에 이어 두번째로 입장했으며 지난대회 우승팀인 한국은「코리안」의 푯말을 들고 입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尹단장은 개막식에이어 시작된 泰國A팀과 싱가포르팀의 첫경기를 지켜보면서 金日成배지를 단 북한팀 단장강과 한시간이상의 대화를 나눴다.

尹단장과 강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尹=고생이 많겠다.

▲강=어느팀인가.

▲尹=한국팀 단장이다. 팀을 이끌고 와 고생스럽거나 어려운 일은 없는가.

▲강=먹는것 자는것 다 편하다.

▲尹=우리는 한국사람이 경영하는 호텔에 투숙, 불편이 없다. 김치가 있는가.

▲강=조금도 염려말라. 직책이 뭔가.

▲尹=축구협회 운영이사다. 당신은.

▲강=체육지도위원회 서기국 운영위원장이다.

▲尹=요즘 이북은추운가.

▲강=우리 소식을 잘 모르는가.

▲尹=항상 막아놓고 있으니 추운지 더운지 생활이어떤지 알수있겠는가. 나이는 몇인가.

▲강=45세다.

▲尹=나는 50이니 형님뻘이다. 88년 올림픽때는 남북이 단일팀으로 나가면 어떻겠는가. 우리 全대통령께서 순수 스포츠교류등을 이미제의하지 않았는가. 金日成다음은 누가 되는가.

▲강=金正日이 된다.

▲尹=당신들은 어떻게 조상을 모시는가.

▲강=조상이 남겨준것이 뭐있는가.

▲尹=5천년의 역사를 모르는가. 선조들이 물려준 저 태극기와 우리의 역사를.(이때 스타디움의 태극기하강)

▲강=(침묵)

▲尹=당신팀을 서울로 한번 초청하고싶은데오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도좋다. 북한팀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싶다.

▲강=대표부(방콕주재북한무역대표부)에 물어보고…

강은 사진기자들이 앞에올때마다 자세를바꾸면서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취했다.

大會비용 增加문제 冬季 스포츠聯회의 사라예보서

【로잔9日AP=聯】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84년도 동계올림픽대회개최지인 유고 사라예보와 대회주최비증가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오는12월2일부터 4일까지 사라예보에서 국제동계스포츠연맹회의를 소집한다.

모니크·베를리우 IOC사무국장은 이 회의의구체적 일정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재정문제토의에 관해서는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의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90

「協商선거법」통과로 政局, 暗雲에싸여

4代出馬포기 野로…大學講義에 心血

58년 4대국회의원선거에서 출마도 포기하고 政界일선에서 발을 뺀 것은 부패한 政局에대한 극도의 분노와 그것을 보고도 制動을 걸수없었던 나스스로에 대한 自責과 自愧心때문이었다.

58년은 정월초하루부터 정치파동이 일어났다. 4대국회 總選을 앞둔 3대국회는 그해정초 말썽많은 協商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이 선거법은 선거를 앞두고 與野간에 默契가 있었다는 배경때문에 與野두 陣營에서 모두 파란이 일어났다.

이 선거법은 특히 언론기관에 대한 制裁를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조항때문에 큰 말썽을 빚었다. 「민주주의의 弔鐘」이라는 말이 국회에서 나온 것이 이때였고 나보다도 말이 더빠른 朴永鍾의원이 『언론을 탄압하는 協商선거법안은 四捨五入의 不法改憲을 감행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공격을 퍼부으며 議政사상 5시간이라는 最長마라톤발언을 기록한 것도 이때다.

협상선거법파동직후엔 進步黨事件이 터졌다. 그 이듬해 나의 정적 동지였던 竹山 曺奉岩이 사건과 관련, 刑場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 나는 정치의 無常함을 또한번 뼈저리게 痛感했다.

5·2총선직전엔 정치자금의 의혹을 불러일으킨 連繫資金放出사건이 터져 국회에서 또다시 파동이일어났다.

암울한 隱遁

政局은아첨배들이 날뛰는 暗政의 늪속으로 자꾸만 빨려들고 있었다. 「정치」란 배는 풍랑에 돛이 부러지고 船上에 균열이 생긴 채 늪의 중심에서 점점 坐礁하고 있었다.

출마를 포기하고 野人으로 돌아가니 일면 마음이 홀가분하면서도 날로 기우는 政局이 과연 어디로갈 것인가를 생각하니 답답하기 한량없었다.

정계에서 물러난 뒤 나는 대학강의에 心血을 쏟았다. 中央大, 建國大등에 出講하면서 나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공부하는 계기로삼았다. 순수한 젊은 학생들을 자주 대하니 정치의 번민도 얼마간 가셨다.

모처럼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자 가족들이 좋아라했다. 정치를한다면서 도무지 아무것도 이루지못한 나로서는 국가와 민족에대해 부끄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대해서도 한가지 책임도 못다했다는 데서 오는 죄책감도 컸었다. 집에서는 偉人들의 傳記등을 다시보고 새지식을 얻으면서 내딴에는 글읽는 선비의 자세를 배우려고 했다.

暗政의 무리들은 계속 비극적인 終末을 재촉했다. 그 무리들은 「鐵窓속의 호랑이」인 李대통령의 정치생명을 숨통까지 막고 있었다.

58년12월24일엔 3분만에 날치기통과된 國家保安法파동이 일어났다. 武術경관들이 의사당에 뛰어들고 국회의원들이 다치고, 이를 「流血의 크리스머스·이브」라고 했던가. 이 보안법파동은 그뒤 닥치는 3·15不正선거의 예비작전과 뗄수없는 관계로 自由黨沒落의 序曲이었다.

自由黨은 李起鵬(朴마리아)一派를 중심으로 해 권세유지에 血眼이 됐다. 「西大門경무대」門前엔 私利私慾을 채우려는 무리들, 눈앞을 못보고 개인영달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득시글거렸다. 그들에겐 기울어가는 自由黨의 落照가 아침의 瑞光으로만 보였던 모양이다.

李起鵬, 그가 리더십이 없고 정치에 눈이 어두운 것은 둘째로 치고, 그는 기동하기도 힘든 病弱者였다. 막판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 그런 그가 국회의장이란 重責을 맡고는 연거푸 부통령후보로 출마했으니 自由黨의 奸惡한 무리들은 권력을 잡기위해선 못할 짓이 없었다.

李起鵬의 아들 康石을 李대통령의 養子로 들여보낸다고 할 때다. 하루는 李起鵬이가 나한테 찾아와 養子얘기를했다. 난 얘기를 다 들은뒤 하도 어이가 없어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오. 세상의 소문을 모른단 말이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李대통령을 크게 욕되게 하는 노릇이고 그대들에게도 비극의 씨가 될것이오』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묘한 사이였던 李起鵬과의 관계는 이일이 있고부터 천리만리 멀어졌다. 자유당의 권세파들은 내가 李대통령에게 무슨말을 할지몰라 늘 나를 감시하고 李대통령과 나사이를 철저히 격리시켰다. 李대통령은 철저히 人의帳幕에 둘러싸인형식화된존재였다.

自由黨의 세력집단은 양심의 소리나 애국적인 忠言을 오히려 모략 중상으로 몰았다. 末期엔 京鄕新聞廢刊등 언론까지 受難을 당했고 양심의 소리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강요당하는 침묵은 폭발하게 마련이다.

60년 自由黨은 끝내 3·15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과 나라를 바로잡기위한 뜻있는 선배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틀어막고는 부정선거라는 권력의 횡포를 자행한 것이다. 꽃다운 젊은 학생들이 不義에 항거하다 이슬처럼 사라져간 것은 두고두고 애통한 일이다.

자유당의 斷末魔와같은 독재와 횡포는 끝내 역사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罪過를 저지른것이다. 그리고 도 모든 책임은 李박사에게 둘러씌웠다.

◇내가 은둔하던 1950年代末 李起鵬을 중심으로 長期執權을노린 自由黨의 횡포는 날로 극심해져갔다. 사진은 3·15不正선거보름전 공군부대 시찰길에나선 李대통령과 李起鵬㊧ 崔仁圭내무장관 (안경쓴이) 李康石소위。

15만년前 直立猿人 丹陽서 化石출토

충북 丹陽郡 梅浦面上詩里에서 진화된 直立猿人의 것으로 보이는 뼈화석 두조각이 출토됐다.

延世大孫寶基교수는 지난번 네안델탈人의 뼈를발굴했던 上詩유적을다시정리하면서 이같은사실을확인, 지난10월 멕시코에서열린 제10차 국제 先史原史과학회에 보고한데 이어 12일 忠北大에서 열린 한국고대사학술강연회에서 발표했다.

출토된 뼈화석은 6~8살난 어린아이의 윗머리뼈로 뒷머리뼈와 맞붙은 이음새가남아있는 부분의 왼쪽과 오른쪽 일부 두조각이다. 두께는 7.5~8㎜.

孫교수는 뼈화석을 정밀조사한 결과 『두께가 두텁고안쪽의 핏줄흠이 뚜렷하며 휘임새로 보아 네안델탈人보다 시대가 앞선 진화된 직립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프랑스의 네안델탈人 전문가이며 파리 인류박물관의 헬교수도 뼈의 두께나 특질로보아 직립원인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다.

진화된 직립원인의뼈화석이 우리나라에서 출토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로써 한반도인류역사는15만년전이전으로 끌어올려졌을 뿐아니라 한민족의 기원을 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직립원인은 2백만년전부터 지구상에 나타나 네안델탈人시대(약10만년~12만년전)나 또는 앞선 세대까지 살았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있다.

또 이날 서울역에 예정보다 10분늦게하오5시20분에도착한 부산발 우등열차 승객 姜炳浩씨(25·상업·서울麻浦區西橋洞468)는 『우등열차란 명목으로 비싼요금을 받으면서 객차가 특급보다 조금 나을뿐 입석승객을 태우고 운행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못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개선을 요망했다.

이에대해 철도청은 환률과 유류값인상및 금년 요금인상이 2개월지연되고있어 적자폭을메우기위해 이같은 실정을 알면서도 개선을못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林承茂기자】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假登記담보 契約法 제정

法定利子도 現實化 건의

대한辯協

서울통합변호사회(회장 曺圭光변호사)는 12일 현행민법에 가등기담보에 관한 명문규정이없어 영세 서민들이 집이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후 이를 갚지못할경우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고있어 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입법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 가등기담보계약법을 제정해줄것을 법무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이변호사회는 또 현행 연5푼으로돼있는법정이율은 통화가치의 하락과 물가상승에 못미치는 비합리적인 것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 소송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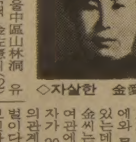
이회가 마련한 가등기담보계약법 시안에따르면 토지또는 건물에대한 가등기를 해놓고 돈을 빈 사람이 계약을 이행치않은 경우라도 채권자는 계약에 따른 청산기일과 청산금(채권액과 부동산가액의 차이금)을 통지한후 이통지가 송달된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수 있도록했다.

또 채권자는 채권액이 가등기담보대상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할때는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한다는것.

한편 법무부는 당초연내에 현행민법과 상법의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었으나 지난9월『각계의견을 집약하고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있다』며 두법의개정작업을 내년으로 연기시켜놓고있다.

年下30代愛人살해혐의 50代여인

아파트서 投身자살


◇자살한 金愛玉씨

속보=서울中區山林洞 유신여관 투숙객 金佐憲씨(32)의 살해범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았던 金愛玉씨(51·여·서울東大門區長安洞19의21)가 범행당일인 지난10일 낮12시께 서울江東區盤室5洞 고층아파트507동8층에서 투신자살했다.

이날 맞은편 5·6동의 1010호에서 알루미늄 새시작업을하던 인부 유재덕씨(25·서울江南區方背本洞17의10)가 25m아래 인도로金씨가 투신자살하는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동안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가 11일밤 中部경찰서 수사진에의해 金씨임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金씨가 범행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단정, 수사를 종결지었다.

자살한 金씨는 5년전 춤바람이 나 가출, 카바레등을 돌아다니다 3개월전 피살된 金씨를 만나 동거해 왔는데 범행당일 상오9시30분께 남편 吳모씨(51)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으나 통화를 거절당하자 전화를 받은 2녀(26)에게 『이젠 마지막이다』고 말한뒤 전화를 끊었었다.

경찰은 자살한金씨가 전화를한뒤에 피살된 金씨의형(36)이 살고있는 이아파트에와 목숨을 끊은것으로보고 있는데 자살한金씨와 피살된 金씨는 지난달18일부터 유신여관에서 함께 묵어오다 남자가 20세나 연하이고 불륜의관계라는 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이 빚어진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가장 살기좋은나라

한국은 1백점滿點중 82點

美環境基金 평가

【워싱턴11日AP=聯】美환경기금의 평가에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는 스웨덴, 가장 살기어려운 나라는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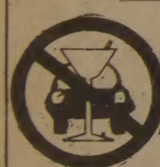
10일 발간된 환경기금의 『연례세계인구평가』는 유아사망률, 1세때의 평균기대수명, 문맹률등 3개기준을적용, 각국을 1백점만점제로 평가했다.

환경기금은 전세계 환경및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데 소득·세금·주택등 경제적요소들은 평가척도로 적용하지 않았다.

평가결과 스웨덴이 최고득점인 97점을 기록한반면 기니비사우는 불과 12점에 머물렀으며 韓國은 스리랑카와 함께 82점을 기록했다.

각국의 점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96점=덴마크·아이슬란드·일본·네덜란드·노르웨이▲95점=캐나다·스위스▲94점=미국·핀란드·프랑스·뉴질랜드·영국▲93점=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체코슬로바키아·동독·서독·에이레▲92점=이탈리아·룩셈부르크▲91점=불가리아·헝가리·폴란드·소련·스페인▲90점=푸에르토리코·루마니아▲86점=홍콩·대만▲82점=한국·네덜란드령 앤틸리즈군도·스리랑카▲73점=멕시코·레위니옹▲68점=브라질·에콰도르·태국▲54점=과테말라·니카라과·시리아·베트남▲47점=튀니지·요르단▲43점=볼리비아·이집트·인도·이란▲36점=아이티·수단▲12점=기니비사우



서 울 식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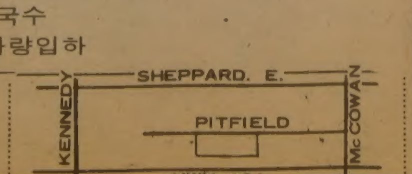
배추 $7.50(박스당) ※선물을 드리는 고로 무·배추의 실제가격은 박스당 $5.00정도에 불과 합니다.

— 13일(금) 부터 효력 —

품목	REG.	SPEC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2.69	2.20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2.49	1.96
●갈 비 Lb.(BOX제한없음)	1.69	1.29
냉동갈비 Lb.	1.49	1.05
●소 꼬 리 Lb.	1.35	.95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B품	10.50	7.40
●명 간 장 1gal.	—	6.90
●양 잠 피 1kg	2.25	1.80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최근일자 기입되어있음	15.00
●오징어젓 Lb.(특별가격)		.80
●김(100장)	19.99	13.90
강냉이차(500 GR.)	1.69	1.49
보 리 차(500GR.)	1.69	1.49

품목	REG.	SPEC.
●멸 치 젓 Lb.	2.99	1.99
●어리굴젓 Lb.	4.90	2.90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각종선물용 상품(gift) — 20% 할인		
●찹쌀고추장	2.50	1.99
●된 장	1.50	.99
●달걀(1다즌, Large)		1.25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물 미 역	1.39	.99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젓($2.90) FREE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다량입하 : 삼양라면, 삼양짜장, 새 칼국수
㊟SALE가격 : 스텐레스 다라이(양품) 다량입하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치,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가게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 구함
☎ : (B)532-6143
(R) 532-9638

CHENILLE 재봉사 구함(경험자 시간당 : $6)
COSMO CRESTING's
☎ : 769-4726

주말에 근무할 분으로(토, 일)
그로서리 캐쉬어 구함.
☎ : 531-3491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 362-2300

"봉재사 급구"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회계사 구함(상점경험 요함)
자격 캐나다 대학이나 칼리지 이수
히스 CO. ☎ : 261-2914

GAS ATTENDANT구함
☎ 782 6311

공장에서 꾸준히 일할 한국 남자를 구합니다.
스카보로 지역에 위치함.
문의처 : BILLO ☎ : 690-5177

매주 일요일만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 : 531-0277 (Mrs. 황)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77-1110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가정형편상 급히 처분하고자 함)
☎ : 526-7179 해밀톤
(오전10시~오후5시 연락바람)

벡커 후렌차이스 매매
☎ : 742-1281 (Mrs. 최)

2DOOR COOLER 매매
거의 새것임
☎ : 298-3584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터 김

급 매
카메라 스토아(전자제품 일부포함)팝니다.
$25,000+스탁
619 BLOOR ST. W.
☎ : 534-1085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여자혼자 운영할수 있는
쉽고 이윤이 좋은 세탁소 급매 합니다.
2687 EGLINTON AVE. WEST.
(직접내방요망) 미세스 강

성업중인 레스트랑 매매 : FAST-FOOD·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2층 2 베드룸 있음.
☎ : 255-6424 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피크링프라자(2개 스토아중 선택)
주매상 : $8000—(1600또는3300스퀘어피트)
에스킹 : $89,000+스탁
●오샤와(MAIN ST)
주매상 : $9000(INCLUDING LUNCH COUNTER
+로타리 티켓)
렌트 : $375, 아스킹 : $42,000+스탁
※BAGOT REALTY INC(REALTOR)
☎ : 1-579-4010
AFTER HOURS 683-8154 프랜크·마그네스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
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진 ☎ : 745-5555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
7721 YONGE ST & CENTRE

집매매 또는 세놓음 : 학교와 교통편리 ☎ : 368-9018
4 BDRM, 2 W.R.M, REC.RM, C.AIRCON.
ROYAL YORK RD. AT MANCHESTER ST.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집·방세·하숙

6RM HOUSE FOR RENT(도바코트와 칼레도니아근처)
버스정유장 근처. 렌트 : $600+유지비
☎ : 533-4481(마이클)

집세놓음 DAVENPORT — OLD WESTON RD
3베드룸, 2화장실
☎ : 536-8506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 (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캄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수리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8-9945 김 봉 균

센츄리냉동 원종성, 이인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한방원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외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퐁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8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50% OFF)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기 타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해국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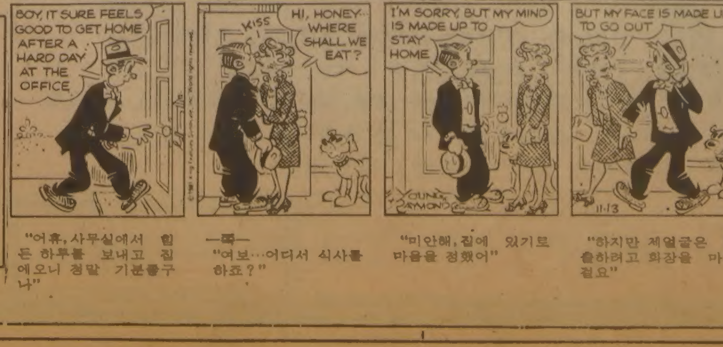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리

Young's JEWELLERY●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R) 281-1954M·남

本社特約 連載漫畫 블론디 딘·영 作



"어휴, 사무실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오니 정말 기분좋구나"
—쪽—
"여보…어디서 식사를 하죠?"
"미안해, 집에 있기로 마음을 정했어"
"하지만 제얼굴은 외출하려고 화장을 마친걸요"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